시간을 거슬러 동아시아 역사를 만나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하영선 편

7

EAI
EAST ASIA INSTITUTE

EAI 사랑방

미래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 년에 시작한 EAI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목차

무엇이 제국을 제국 답게 만드는가 4

_중국국가박물관 〈평정준가르도〉 ① **주은우**

소조정 시기 자금성의 선통제 부의와 그의 12 일 간의 꿈

-북경정변과 선통복벽을 바탕으로- 19

_ 자금성 ② **김민정**

서태후의 두 얼굴 34

_이화원 ③ **신동혁**

마오의 고민: 장개석 접근법

연합전선, 그리고 명분과 실리 54

_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④ **김대영**

중일전쟁과 마오쩌둥의 항일 활동 평가 78

_마오쩌둥 기념관 ⑤ **윤지원**

이백의 달빛은 오늘, 이곳을 비추고

798 예술구 후속세대 리송송을 중심으로 101

_798 예술구 ⑥ **강민아**

1 장

제국의 품격: 무엇이 제국을 제국 답게 만드는가 _중국국가박물관 <평정준가르도>

주은우

이화여자대학교

현대 중국의 제국몽과 대청 제국의 유산

청 제국은 몇 세기 만에 최대한도로 성장 하였으며, 그때의 기본적인 국경 형태가 오늘날의 현대 중국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나라가 현 시대의 중국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 중 하나가 바로 그러한 국경의 확장과 제국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중국이 그려 나가는 동아시아의 지도 또한 청나라 시대에 완성된 밑 그림을 배제한 채 상상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진핑의 진두지휘 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국제 질서에 '중국적 가치'와 '중국적 표준'으로 대표되는 중화질서(Pax Sinica)로 대항하는 현대 중국의 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제국적이었던 청나라 시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전 왕조인 명나라에 비하여 영토가 두 배정도로 확장되었기도 하거니와, 내몽골 지역, 길림성, 요녕성, 흑룍강성을 포함한 만주 일대, 티베트, 그리고 오늘날의 신강위구르자치구와 같은 오늘날의 중국 영토가 청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화 세계의 일부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몽골에서 히말라야 산맥까지, 오호츠크 해부터 발하슈호에 이르는 외곽으로의 확장 중국 내륙과 대만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통합 작업이 격동적으로 이루어진 이 한 세기를 읽어내는 작업은 (정교함과 섬세함을 요하는 다소 난해한 작업 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국제 정치 학도들이 중국의 심상을 읽어내고, 측정하고, 평가하려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한 조각의 퍼즐일 것입니다. 현대 중국이 펼치는 외교 정책과 대외관에서 엿볼 수 있는 제국적 공간 상상력이 지금 우리가 살펴 볼 '대청 제국'에 이르러 비로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21 세기 중국의 제국몽이 대청 제국의 것과 닮아 있다는 인상은 단순한 착각일 뿐일까요? 전통 천하 질서에서 복합 세계 질서라는 새로운 무대로 바뀌었지만, 오늘날 중국의 물상과 심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4 세기 이전 청나라의 그것을 돌아볼 것을 요하는 작업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나라가 중국 역사에서 위치한 지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자면, 전통 천하 질서와 근대 국제 질서로의 이행기였습니다. 그렇기에 두 가지 질서 체제 양 극단에 치우친 프레임 워크(framework) 만으로는 대청 제국이 이룩한 천하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단원적 천하의 모습, 예치의 작동 원리에 기울여진 페어뱅크(John K. Fairbank)의 천하질서론과 근대 국제 질서에 보다 근접한 다원적 천하의 모습을 포착하고자 한 로사비(Morris Rossabi)의 논의에 맞추어 청을 제대로 알기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청의 천하를 살펴볼 때에 다른 왕조 치하의 천하와는 사뭇 다른 인상을 받는 이유를 그들이 이민 왕조였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설명에 귀결시키는 것은 진상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왕조를 통틀어 생각해 보더라도 천하 질서의 4 대 작동 원리가 가장 복합적인 양상을 띈 시기는 청나라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작동 원리의 복합성은 대청 제국의 형성과 발전을 가능케 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제국의 품격: 무엇이 제국을 제국 답게 만드는가

전통 천하 질서를 움직이는 4 대 작동 원리인 예치, 회유, 기미, 정벌은 결국 물상과 심상이 어떠한 비중으로, 그리고 어떤 성격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또는 민족을 예치로써 대한다면 그것은 곧 지배하는 힘, 즉 지배력의 행사 보다는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구하는 데 더 힘을 쓴 것이지요. 또한 예치의 경우 그 정당성이 유교적 명분과 질서에 기반해 있는 것이 그 명분의 성격입니다. 이와는 완전히 대칭점에

위치한 정벌의 경우 물리적 힘에 의한 강제 라는 점에서 심상보다는 물상에 의존합니다.

대청제국의 세력 범위를 크게 중원 지역, 그리고 서북 지역의 몽골과 티베트, 그리고 준가르로 나누어 본다면, 심상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한 곳은 티베트이고 물상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한 곳은 준가르였습니다. 라싸를 중심으로 한 티베트 지역의 경우 대청제국을 설립한 홍타이지 때부터 이미 형성된 티베트 불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청의 세력 범위 내로 들일 수 있었습니다. 군사를 통한 정복 또는 군사 동맹이 아니라, 청의 황제가 티베트 불교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통치의 권위를 세워 나간 것입니다. 비록 유교적 성격의 것은 아니었지만 예치와 같이 비강제적, 명분적 요소가 가장 두드러진 지배 원리였습니다.

심상과 물상의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 지역으로는 몽골 일대와 중원 지역을 들 수 있습니다. 몽골족의 대표격인 보르지긴의 에제이가 홍타이지에게 원조 황제의 옥새인 제고지보를 바치고, 명조 멸망 이후 청조가 심양으로부터 북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이래로 청의 황제는 '서북부 유목 사회 칸의 계승자' 그리고 '(전통적 의미의)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라는 두 가지 칭호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은 몽골 지역 지주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몽골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 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비록 군사를 통한 일정 정도의 통제가 존재하였지만, 중원 지역에서 또한 중국 전통의 토지 관리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용되고 명의 관료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몽골족과 한족에 대해서는 그 통치 권위의 기원도, 통치의 방식도 매우 달랐지만, 두 민족 모두 청이 심상과 물상 모두를 이용해 다스렸고, 그 민족적 원형이 대체로 지켜진 편에 속합니다.

물상적 요소가 가장 많이 돋보이는 준가르에 대한 청조의 대외관을 제외하더라도, 청조가 '제국'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실로 다양한 통치 도구들을 이용하고 있었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북지역에서부터 발원한 이민족인 만주족이 중원을 포함하여 건설한 제국인 만큼 '천하'의 개념이 공간적으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천하를 운용하는 작동 원리 또한 굉장히 복합적이었습니다. 예치, 회유, 기미, 정벌의 복합된 형태 이외에도 심상을 이용하되, 불교적 질서에 기반을 둔 티베트에 대한 통치 또한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통치 하에서 각 민족들이 하나로 통합되되, 일률적으로 통일되지는 않는 독특한 풍경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조의 천하는 가장 제국 다운 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민족과 정치체를 하나로 묶는 제국의 품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식과 구성에 있어서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청제국은 그렇게 제국으로의 용모와 품격을 갖출 수 있었지요.

<평정준가르도>: 황제의 산 넘고 물 건너

물상의 힘이 가장 선명하게 관찰되는 청과 준가르의 관계를 통해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정벌의 원리가 극한으로 나타난 순간이 바로 <평정준가르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준가르 부족의 지배 계층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학살되거나, 당시 유행한 천연두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최후의 유목제국으로 서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가지 작동 원리 중 청이 어째서 준가르에 대해 민족의 몰살이라는 정벌의 극치를 선택하게 된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서북 변경에 대한 청의 대외 정책의 바탕을 이룬 물상과 심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청이라는 열매를 맺기 훨씬 이전에서부터, 민족 국가로서 발아하기 위한 토양이 바로 서북 지역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이 중원 지대를 차지하고 제국의 중심축이 황하로 이동됨에 따라 후대에는 청과 서북 지대 간 대외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모르게 일축하려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 올라가다 보면, 역대 황제에게 있어 서북 지역 국가, 민족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는 '대청 제국'이라는 장편 소설의 처음에서부터 등장한 숙원 사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숙원 사업의 핵심에는 적절한 '심상'의 발휘를 통한 예치와 회유만으로는 통제되지 않던 '준가르'라는 골칫거리가 존재했습니다.

청의 준가르 정벌 사업은 강희에 이르러 본격화 되었으며, 조부가 끝내지 못한 과업을 성실하게 마무리라도 하듯 건륭이 준가르를 멸족시키며 그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강희만 보더라도, 8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한족 군벌들이 일으킨 삼번의 난에 대해서는 직접 전선에 나서지 않은 반면, 갈단이 이끄는 준가르의 위협에 대항하여 군사를 친히 이끌고 정벌에 나선 것은 눈 여겨 볼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왕조의 오랜 역사 속에서 황제 스스로가 군을 지휘하여 고비 사막의 북까지 친정한 경우는 손가락으로 셀 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바로 이전 왕조인 명조의 영락제가 몽골 고원을 건너는 친정에서 귀환 도중 병사한 이래로 중국 황제에게 있어 금단의 구역 마냥 여겨져 온 그곳을 강희제가 몸소 친정하였다는 것은, 대청제국의 황제는 전통 천하 질서의 중심이었던 중원 지대를 다스리는 천자 이상의 권위를 요하는 직이었다는 것의 반증으로 삼을 수 있겠지요. 천명을 받드는 중국의 황제이자 몽골부터 티베트를 아우르는 서북 지역의 대칸으로서 갈단의 야망을 묵시한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유목 사회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게다가 알타이 산맥 너머 러시아나 이슬람 문화권이 드리우는 위협에 대한 완충지대가 무너지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그대로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었습니다.

강희제는 준가르 정벌 여정에 나설 때마다 북경의 황태자에게 매일의 일을 편지로 전했습니다. 편지의 기록에서 강희제가 갈단의

우세한 병력에 좌절하는 대신들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연설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단이 할하와 외번 몽골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짐은 지금 ... 출정하였다. 지금 우리가 ... 이대로 돌아가게 되면 ... 북경에 돌아가 천지, 태묘, 사직에 무어라고 아뢸 것인가?” (친정평정삭막방략 22 권 중, 해석: 《강희제의 편지》, p. 108) 비단 당시 강희제의 눈에 비친 준가르 정벌 사업은 서북 민족에 대한 지배 권위 유지 뿐 아니라 ,영토 확장의 대업을 이룬 위대한 중국 황제로서 중원에 대한 지배 권위 강화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여타 지역보다도 ‘정벌’이라는 물리적 힘과 물상적 요소가 가장 많이 반영된 방식으로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갈단이 주적으로 쫓고있던 할하의 지배층이 청에게 비호를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하의 지배층의 지지를 얻는 일은 곧 외몽골 지대 영주들을 청의 세력 범위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했고, 동시에 몽골 지대 전반에 걸쳐 청조의 통치 이념 정당화에 크게 일조한 티베트 불교를 수호하는 것과 결부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강희의 준가르 친정이 전투에서의 일련의 승리와 갈단의 병사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둔 이후, 1718 년에 할하 몽골 출신의 젭춘담바 호독토를 관할 지역 내 황교 교주로 임명한 것 역시 티베트 불교권에 대한 청조의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려는 내막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역대 왕조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룬 강건성세의 또 다른 주인공인 건륭제는 ‘준가르 문제에 대한 영구적 해결’이라는 과업을

이룬 인물입니다. 비록 그 해결 방법이 티베트, 몽골, 그리고 중원에서 작동하던 지배 원리와는 파격적으로 다른 형태를 띄었지만 말이지요. 한때 강희에 대견할 만한 적수였던 갈단 보쇽트의 뒤를 이은 준가르의 새로운 지도자 갈단 체렝이 사망하고 내부의 권력 투쟁이 발생함에 따라, 옹정연말에서 건륭연초에 체결되었던 청과 준가르 사이의 조약은 아주 쉽게 으스러졌습니다. 건륭에게 있어 더 이상 준가르의 변덕과 위협을 용인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부인 강희의 친정을 시작으로 서북으로의 물자 보급망이 이미 구축된 상황이었고, 티베트, 몽골, 그리고 중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지배하는 영토와 민족들에 대한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준가르 정벌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강희와의 전투에서 참패한 이후에도 준가르는 갈단 체렝 하에서 재통합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청의 관할 지역으로의 지배 야심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막북의 몽골고원, 동쪽의 할하, 남쪽의 라싸로 빈번하게 침입하며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준가르를 묵인한다는 것은 훗날 대청 제국을 큰 위험에 빠뜨릴 불씨를 키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몽골과 티베트 일대에 대한 비호 제공과 수호자로서의 역할로서 그 통치 정당성을 확보 했었기에 준가르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북이라는 거대 유목 지대에서의 패권을 준가르에 내주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일어난 준가르의 내부 분열과

아무르사나가 건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은 청에게 준가르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당시 건륭은 청의 지배계층인 만주족이 안락한 생활과 사치 그리고 한족에 대한 문화적 동화에 젖어가는 것으로부터 '만주스러움'을 지켜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건륭조상유당 3 권 중 건륭이 "오늘 짐은 성조인 황제(강희) 연간의 〈실록〉을 훑어보다가 다음 부분을 읽게 되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평화롭지만 군사상의 준비를 방기할 수는 없다. 만주족이 계속해서 군사상의 준비를 충실히 하고, 이어서 사냥을 계속하며, 몸소 근면을 실천하고 ... 이것은 한족이 쉽게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니 ...' 이 부분을 읽다가 짐은 전율과 공포감에 빠졌다"라고 언급한 부분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가 십전노인을 자처한 것은 천지 통일이라는 천명을 이뤄 낸 '만주 출신의 천자'라는 사실을 한 단어로 일축한 것이었습니다. '십전노인'에서 건륭이 십전 모두를 중국 변방에서 벌어진 전투로 칭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외부로부터 중원을 수호하고 천하를 통일하는 모습은 중원에 대한 청조의 지배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1755 년 3 월 말에 시작된 건륭제의 첫번째 정벌은 청의 칼날이 자신을 향해 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한 준가르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 때 건륭제는 준가르를 철저히 파멸시키기 보다는 강희 연간의 준가르 때와 같은 강력한 연맹체로의 통합이 불가능 하도록 부족을 다양하게 나누어 각각에 지도자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부족 간 동맹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건륭의 의지에 저항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륭은 준가르를 완전한 청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단하였고, 결국 두번째 정벌을 통해 인구의 대부분이 피살되거나 병사함으로써 준가르라는 민족 자체가 사실상 전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가르는 최후의 몽골 유목 제국으로 역사 속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듯 역사의 패자인 준가르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준가르와 관련하여 남아있는 기록 마저도 청에 의해서 그리고 청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비하여 청은 서적, 그림, 비석, 지도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건륭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통해 중원과 서북부 지대에 대한 청조의 통치 정당성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북경의 공묘(태학) 대성전은 청대 왕조의 '문(文)'과 관련된 인물과 공적을 기리는 일명 '문(文)'의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태학이나 공자를 기리기 위한 이곳에서 본래 목적과 전례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무(武)'의 업적과 관련된 비석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준가르 전승비입니다. 유목민족을 제압하고 기존의 천하적 세계관을 확장한 건륭의 업적은 단순히 '위대한 무공'이상의 가치를 가졌고, 이를 널리 선전함으로써 한족에게 복종을 요구하려는 청조의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황조(강희)와 황고(옹정)께서 여러 차례 중가르를 공격했지만 ...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 짐은 천하의

만물을 다스리는 군주로서 모든 것을 포괄 하나니, 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유목민의 일을 규제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옳다. ... 우리 만주족의 오래된 관습은 전쟁으로 소집될 경우에 모든 사람이 결집하는 것이니, ... 이제 짐은 오히려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청고조실록〉 490 권 중, 《건륭제》, p. 213 해석 참고) 와 같은 기록에서 엿볼 수 있듯이 건륭이 칭하는 ‘천하’란 한족출신의 왕조들이 그려온 천하에서 한 차원 더 확대된 공간을 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다스리는 청조는 중원의 천명을 받드는 황제, 천자인 동시에 서북부 유목 민족의 위대한 칸이기도 했지요. 또 다른 기록에서는 건륭이 이룬 천하 대통일의 업적을 한, 당, 송, 명 왕조의 것과 비교하며 만주 출신의 청 왕조의 울월함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청고조실록〉 587 권 중, 《건륭제》, p. 211 해석 참고).

대청 제국과 준가르: 〈평정준가르도〉 속 청사진을 찾아라

〈평정준가르도〉에 천하 질서의 작동 원리 중 정벌의 요소가 가장 짙게 나타난 것은 건륭제 개인의 호전성이 나타난 결과 라기보다, 중원과 서북방을 아우르는 청의 지배력과 지배 정당성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철저하고 세밀한 계산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제국이 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치 여러 개의 다른 재질과 색깔의 헝겊 조각들을 맞추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이 정교한 심상과 물상의 조화를 요하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민족과 정치체들을 하나로 잇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군사적 힘과 타당한 지배 정당성이라는 실과 바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이음새를 계속해서 약화 시키려는 준가르에 대한 최종 해결과 서북 지역에 대한 지배의 안정화, 그리고 막대한 영토 확보를 통한 중원의 황제로서의 위상 강화. 이 모든 것이 〈평정준가르도〉에 숨겨진 청조의 청사진이었던 것입니다.

〈평정준가르도〉를 통해 떠난 400 여년 전으로의 여정에서 대청제국의 '제국으로서의 품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조가 준가르를 멸망시킬 수 밖에 없었던 이면의 사정'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분명한 역사의 드라마를 논하는 것은 패자의 입장은 전혀 알 수 없다는 비극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과 준가르, 그리고 서북 지역의 이야기는 청이 현실로 만든 제국의 꿈과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현대 중국을 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또는 제국의 국제 정치라는, 보다 넓은 국제 정치적 상상력을 얻고자 하는 우리가 '동아시아 질서 건축'의 현장에서 발굴한 귀중한 유물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은 분명히 기존의 전통적인 중화 세상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현상(phenomenon) 이었지만, 청이 제국으로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형태의 지배 방식과 논리, 이념, 정당성이 존재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온고지신'의 가치가 청의 제국 정치에서 적절히 발휘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평정준가르도〉를 통해 들여다본, 현대 중국의 제국몽 속에 감추어진 청나라 시대의 제국적 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문헌

김명호. 1990.《열하일기 연구》. 서울:창작과 비평사.

김선민. 2016. "청 제국의 지배이념과 지배체제."《사총》제 88 호.

김성수. 2013. "17 世紀初 滿蒙 關係와 內陸 아시아 -만주-호르친 몽골 관계를 중심으로."《중국사연구》제 82 호.

구범진. 2012.《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서울:민음사.

궁협순자. 2000.《최후의 몽골유목제국》. 조병학 역. 서울:백산출판사.

남호현. 2018. "『熱河日記』黃敎 관련 서술을 통해 본 박지원의 淸朝 인식."《한국학연구》제 65 호.

마크 C.엘리엇. 2001.《건륭제》. 양휘옹 역. 서울:천지인.

오카다 히데히로. 2014.《강희제의 편지》. 남상궁 역. 서울:경인문화사.

유정아. 2006. "청조의 티벳정책의 성격에 관해서."《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선애. 2015. “外國(tulergi gurun)에서 外藩(tulergi golo) 으로.” 《명청사연구》 제 43 호.

이준갑. 2009. “乾隆年間 淸朝의 대외 전쟁과 제국체제.” 《한국학연구》 제 20 호.

조병학. 2011. “18 세기 초 청준가르몽고 관계 연구.” 《명청사연구》 제 36 호.

_____. 2013. “강희제의 제 1 차 대 준가르 몽골 친정 과정 및 영향.” 《몽골학》 제 34 호.

최소자. 2003. “明淸時代 對外關系史의 成果와 課題.” 《명청사연구》 제 19 호.

피터 C. 퍼듀. 2014.《중국의 서진》. 공원국 역. 서울:길.

하영선. 2019.《사랑의 세계정치》. 서울:한울아카데미.

Brook, Timothy, Michael can Walt van Praag, and Miek Boltjes. eds. 2018. *Sacred Mandates: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Chinggis Khan*.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rossley, Pamela K. 2000.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erdue, Peter C. 2005.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eust of Central Eurasia*. 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Twitchett, Denis and John K. Fairbank. Eds. 2008. *Part One: The Ch'ing Empire to 1800—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장

소조정 시기 자금성의 선통제 부의와 그의 12일 간의 꿈 -북경정변과 선통복벽을 바탕으로- _자금성

김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머리말

1912년 2월 12일, 융유태후는 《청실우대조건》을 받아들이고 《퇴위조서》를 반포하였고, 이로써 청나라는 종언을 맞았습니다. 《청실우대조건》에는 대청황제가 퇴위한 뒤에 취할 대우조건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이 공문에 이르기를, “청나라의 황제는 퇴위 후에도 존호가 변하지 않으며, 중화민국 정부는 청 황제를 외국 군주의 예로서 대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민주제가 군주제를 대체하고 새로운 공화정 정부의 민국 시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혁명”의 수단을 통해 약 2000년 간 지속되어 온 절대 왕조의 붕괴를 성공시켰음에도 이전의 대청제국 황제를 ‘외국

군주'로서 예를 갖추어 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한 청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 부의는 퇴위 후에도 자금성에서 거주할 수 있었으며 시위인(侍衛人)도 계속 고용할 수 있었었습니다. 게다가 위의 우대 조건에 따라 왕공작위는 예전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자금성은 '나라 안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황제 중심의 중국적 천하질서가 20세기 민국정부에서도 유효했다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나라 안의 나라'는 잔여 봉건 세력들의 '봉건 왕조의 복벽'이라는 꿈을 더욱 현실화했습니다. 1917년 장훈은 3000명의 군사('변자군'이라고도 한다)를 이끌고 북경에 진입합니다. 장훈과 그의 군사들은 부의를 다시 용상에 올려놓고 12일 동안 이마를 조아리며 만세를 부르며 부의의 복위를 성공시킵니다. 그러나 여원홍과 단기서, 풍국장 등은 선통제의 복벽을 반대하였습니다. 단기서는 역적토벌군을 조직하고 장훈에 대한 토벌을 나섰습니다. 결국 부의의 스승과 아버지는 퇴위조서를 대리 작성하였고 부의복벽이라는 촌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공화국 정부임에도 《황실우대조건》을 통해 절대 왕권이 계속 유지되고 복벽을 통해 절대 왕조로의 회귀를 꿈꿨던 중국 역사를 되돌아보며 《황실우대조건》의 '원동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후 부의가 신해혁명(1912)이 아닌 북경정변(1924)으로 퇴위했던 이유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① 신해혁명 이후 청 왕조의 붕괴에도 《청대퇴위 우대조건》이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② 민국 시대가 들어섰음에도 장훈(장쉰)의 병변을 통해 선통제가 복위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③ 부의가 1912년 신해혁명 직후가 아닌 1924년 북경정변으로 출궁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신해혁명 이후의 민국정부에도 여전히 황제 중심의 중국적 천하질서가 유효했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주나라(周) 시기에 형성된 중국적 천하질서가 자금성 안의 또 다른 나라 안에서 살아남았고 임시총통이었던 위안스카이가 절대왕조에서의 절대권력을 획득하고자 했던 야망이 합쳐져 《청대퇴위 우대조건》과 장훈복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해혁명으로 얻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근대적 혁신에 적응하지 못해 선통제는 자금성에서 왕의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민국시대를 맞이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황제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어떻게 선통제가 황궁(자금성)에서 계속 그의 권위를 누릴 수 있었는지, 그가 장훈이 주도한 병변을 통해 꿈꿨던 20세기 천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연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신해혁명과 북경정변의 어떤 차이가 선통제를 출궁시킬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신해혁명과 “청대퇴위 우대조건”(1912)

홍수전이 창시한 그리스도교 비밀 결사를 토대로 1851년에서 1864년까지 청조 타도와 새 왕조의 건설을 목적으로 농민 혁명 운동인 태평천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태평천국운동은 청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한인 관료의 대두를 촉진시키고 그 뒤 중국 혁명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1898년 청일전쟁 패배 이후 청나라 사회전반의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캉유웨이와 량치차오가 중심이 된 변법자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술변법(戊戌變法)이라고도 불리며 헌법제정과 국회개설을 목표로 한 입헌운동이었으나, ‘위안스카이의 배신’과 서태후의 쿠데타로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청조타도(清朝打倒), 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한 혁명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광서제와 서태후가 사망하고 3살의 부의가 황제로 등극하자 청조 정치는 더욱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청나라는 민영으로 운영되던 철도의 국유령-원칙적으로 건전한 것이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각지에서 강한 반대가 일어났다-[1]을 발표하여, 그것을 담보로 열강의 금융자본 연합체인 4국 차관단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 재정난을 타개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은 고통이 가중되었고, 철도 국유령에 대하여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1] 레지널드 존스턴, 『자금성의 황혼』, 돌베개, 2008, P.120

광둥(廣東) 등에서 광범위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특히 쓰촨(四川)에서는 대규모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청조가 쓰촨폭동을 토벌하기 위하여 후베이신군(湖北新軍)을 동원하자, 우한(武漢)지구에서 문학사(文學社)와 공진회(共進會) 등을 조직하여 신군(新軍)공작을 전개해온 혁명파는, 10월 10일 우창(武昌)에서 봉기하여 중화민국 군정부를 설립함으로써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창봉기는 전국에 파급되어 거의 모든 성에서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후 1912년 1월 1일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고 난징정부가 수립되어 삼민주의(三民主義)를 지도이념으로 한 중화민국이 발족하였습니다. 청조는 베이양(北洋) 군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위안스카이(袁世凱)를 다시 기용하여 혁명군의 토벌을 명령하였습니다. 존스턴은 이를 그의 저서 『자금성의 황혼』에서 위안스카이가 재등용하는 데에 있어 그럴싸한 옹호론이 존재했다고 설명합니다. 존스턴은 위안스카이가 외국인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기에 반란 진압에 있어 외국 금융시장에서 외채를 모집할 수 있었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2] 위안스카이는 호광총독湖廣總督, 황실 군대의 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어 그는 군사 문제에 착수해 양자강 중부의 혁명군과의 전투에서

[2] 레지널드 존스턴, 앞의 책, pp. 120-121

순식간에 전세가 호전되었습니다.[3]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전력을 다해 혁명군을 더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존스턴은

"원세개는 분명 자신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그의 행위를 이끈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금세 확연하게 드러났다."[4]

고 평가합니다. 위안스카이는 청나라의 황제를 퇴위시키는 조건으로 쑨원으로부터 대총통의 지위를 이양 받았고 그 해 3월에 정식으로 대총통에 취임하여 베이징정부(북경정부)를 조직하였습니다.

이후 1911년 말에서 1912년 초에 걸쳐 상해에서 열린 혁명파와 황실 간의 강화회의에서 두 당사자는 '불편한 동거'라는 매우 특이한 타협을 맺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베이징정부를 조직하고 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앞장서면서도 청 왕조와《청대퇴위 우대조건》을 맺으면서 절대 왕조를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청 황제는 사위(辭位) 후에도 그 존칭을 유지하며 중화민국은 그를 외국 군주의 예로 대우한다." 등의 8개 조항 외에 청 황족 대우 4개조,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 7개조에 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 《대청 황제 우대 조건》을 통해 청나라 황제였던 부의는 청 왕조의 몰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3] 레지널드 존스턴, 앞의 책, p.122
[4] 레지널드 존스턴, 앞의 책, p. 122

자금성 안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청 황제 우대 조건》이 가능했던 이유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대 조건은 강화회의의 '타협의 산물'이었기에, 제정파帝政派나 공화주의자들 모두 철저하게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스턴은 궁정이 황제 퇴위를 포함한 타협안에 양보에 동의했던 이유를 '그 타협안이 위안스카이의 야망과 구상에 합치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5] 황제로 등극하고자 했던 위안스카이의 집권 욕망과 고대의 중국적 천하질서 기반의 치자와 피치자의 선험적, 경험적 개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1912년 신해혁명 당시 봉건 사회의 근본적 개혁이 실패한 것입니다. 위안스카이가 반란 진압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지 않았던 것은 황제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해혁명을 통해 반봉건 사회성을 변화시키지 못함으로써, 공화정 이후에도 선통제가 궁(자금성) 안에서 황제의 권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해혁명의 진압자인 위안스카이의 집권 야망이 제정으로의 전복 가능성을 낳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심상 속 야망이 타협이라는 가면을 쓴 대우 조건에서 '황제 우대'의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제정 회귀로의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신해혁명 이후의 선통제는 계속해서 그의 삶을 자금성 안에서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선통제는 청 왕조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5] 레지널드 존스턴, 앞의 책, pp. 144-145

복벽을 꿈꿨습니다. 선통제가 복벽을 꿈꿀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서 설명했던 '제정 회귀의 가능성'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황제의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그 권리를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자금성에서의 삶으로 인해 선통제는 복위를 꿈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복벽을 그 무엇보다 꿈꾸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자서전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이 당시에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던 것은 동북의 백성이 많이 죽었다는 것도 아니었고, 일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이 식민지를 통치할 것인가도 아니었다.(이하 생략) 나의 관심은 복벽을 요구하며, 내가 황제임을 그들이 인정하게끔 요구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합니다.[6] 부의의 회고록과 청대 자금성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1차 사료에 나타난 선통복벽과 장훈병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대청제국 회복'의 관점이 복벽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대 자금성에 살았던 태감과 궁녀의 회고록에서 나타난 궁 내부의 일반인의 생활과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규율과 제재는 자금성 안에서의 절대 왕조의 잔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를 통해 천하 질서 기반의 작은 제국이 민국시대의 자금성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실우대조건》은 청 왕조의 몰락 이후에도 선통제를

[6] 부의(1988), 『황제에서 시민으로(상)』, 문학과비평사, 이충양 옮김, p.369

'황제 우대'함으로써 선통제가 자금성을 계속해서 '황실'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어린 부의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황실우대조건》으로 황제의 권위를 일부 누릴 수 있었고, 자금성 내부의 잔여 봉건 세력은 그를 황제로서 예우했기에 부의의 자금성은 '소조정'(小朝廷)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장훈이 변자군을 이끌고 선통제의 복위를 위해 병변을 일으켰을 때 선통제 역시 그 뜻에 반대 없이 따랐던 데에는, 소조정을 '조정'으로 되돌리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황실우대조건》은 위안스카이와 선통제라는 두 주인공이 자금성을 무대로 한 '동상이몽'이라는 연기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3. 북경정변(1924)과 부의의 자금성 출궁

1917년 7월에 장훈의 청조복원운동이 발생합니다. 당시 량구이등(楊桂堂)이 토벌령을 피해 도망한 탓에, 펑위샹이 여단장으로 복권되어 장훈을 격파했습니다. 1924년 펑위샹은 쿠데타를 일으켜 총통 위안스카이의 직계 군벌 차오쿤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1918년에 펑위샹은 돤치루이로부터 쑨원의 토벌을 명령받지만, 평화협상의 전보를 보내 돤치루이를 격앙하게 했습니다. 이후 펑위샹은 쑨원과 교류하며 민주화를 지향하면서 중국국민당에 입당했습니다. 1924년 제 2차 직봉전쟁(직예군벌과 봉천군벌의 전쟁)

때는 펑톈파와 손을 잡아 즈리파의 차오쿤을 몰아내고 베이징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펑위샹은 베이징 점령 이후 1912년의 《청대퇴위 우대조건》을 수정한 뒤 청나라 황실을 협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펑위샹의 군대가 자금성을 점령했으며, 청나라 황제 부의와 황후는 추방되었고 청나라 황실은 자금성에서 축출되었습니다.

"부의출궁"은 북경정변의 가장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가 출궁당하는 일은 현대사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료의 결여가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해혁명 이후에도 건재했던 청나라 황실이 북경정변으로 인해 청 왕조가 자금성에서 완전히 축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단 펑위샹의 위협만은 아니었습니다. 민국정부 수립 이후의 청 황실 우대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인민들의 고통 가중, 봉건성의 잔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의의 출궁 및 청 황실의 축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1912년과 1924년의 시대적 상황과 인물들의 심상이 달랐던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제제(帝制) 회귀를 통해 자신이 황제로 오르고자 했던 위안스카이의 심상과 민주화를 지향하며 잔여 봉건 세력을 없애고자 했던 펑위샹의 심상의 차이가 자금성 내부의 청 황실의 존재를 결정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각 혁명 당시 집권자의 '심상'은 선통제와 만주왕조의 운명에 있어 결정적 요소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합니다. 신해혁명은 제정파와 혁명파 간의 대결구도였다면 북경정변은 직예파와 봉천파의 군벌들 간의 권력 다툼이었다는 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신해혁명 당시 공화정 수립 이면에 존재했던 《대청 황제 우대 조건》이 혁명파와 신민臣民에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북경정변은 위안스카이의 직계 군벌이었던 직예파와 봉천파의 군벌 경쟁이었기에, 풍옥샹과 봉천파의 입장에서는 위안스카이 및 직계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거나 바꾸고자 했을 것입니다. 존스턴은 풍옥샹이 제안한 《대청 황제 우대 조건》의 수정 요구를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화국이 이 새로운 협약을 충실하게 준수하겠다는 보장이 어떤 형태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이것은 곧 펑옥샹과 봉천파 군대가 절대 왕조의 진정한 멸망을 원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청 황실을 예우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던 제정帝庭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북경정변의 중심이 되었던 풍옥샹의 심상에는 황제에 등극하고자 하는 야심이 없었던 것으로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우대 조건의 수정과 폐기, 더 나아가 선통제와 황후의 자금성 출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4. 맺는말

장훈병변을 통해 선통제가 복위하고자 했던 목표를 다룬 연구 자료와 복벽 후 12일 간의 선통제의 생활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어 글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자료가 장훈이 변자군과 함께 단기서에 대한 배신으로 선통제를 복위시키려 한 사건을 일차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통복벽과 천하天下의 개념을 연관 지어 설명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선통복벽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 번의 퇴위를 거친 선통제가 다시 복위하고자 했던 이유를 천하질서天下秩序의 회복과 함께 조망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12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장훈복벽을 통해 어린 부의가 그가 경험했던 절대 왕권으로부터의 실리를 취하려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가 그의 자서전에서 기술했듯이, 성인이 되어서도 만주국에서조차 황제로서의 권위를 갈망했던 것은 황제 교육에서의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황제로서의 권익 추구뿐만 아니라 자금성 안에서 함께 살았던 잔여 봉건 세력의 심상이 결합되어 선통복벽이 일어났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선통복벽이 실패했지만 여전히 선통제와 청 황실은 자금성 안에서 그들의 권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청 황실 권한의 유지 원동력은 《청대퇴위 우대조건》이었는데, 위안스카이의 황제 등극(혹은 신왕조 건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의 야망이 이러한 청 황실의

우대조건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조의 몰락'이라는 신해혁명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자금성 안의 청 왕조의 잔여에 대한 '청 왕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는 이유는 상당한 모순점을 가집니다.

신해혁명 이후의 자금성 내부의 선통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호화로웠을 것입니다. 《청대퇴위 우대조건》의 조항에 따라 선통제가 몰락한 왕조의 황제라는 이름에 비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의는 궁녀, 태감(내시) 등을 고용하면서 자금성 안에서의 편안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도 1924년의 북경정변으로 인해 부의가 축출되면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앞서 연구 질문이었던 부의가 왜 1912년의 신해혁명이 아닌 1924년의 북경정변으로 인해 출궁되었는지도 반추해볼 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가 위안스카이와 펑위샹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부의의 출궁 위협이 같은 내국인으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상에 존재했던 각기 다른 목표는 청 왕조의 생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청 왕조를 유지시켜 자신이 황제가 되고자 했던 위안스카이와 민주화를 지향했던 펑위샹의 근본적인 심상 차이가 절대 왕조의 성쇠를 결정했습니다. 북경정변으로 인해 자금성에서 추방된 부의와 청 왕조의 축출은 중화민국 수립 이후의 진정한 민주주의 시작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주나라 때 형성된 중국적 천하질서 기반의 절대 왕조는 약

400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20세기 초, 공화제 수립과 봉건제의 몰락을 주장하는 혁명 운동으로 절대 왕조는 위기를 맞았지만 마지막 청 왕실의 몰락 이후에도 여전히 궁궐 안에서의 작은 제국(절대 왕조)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혁명 주체의 심상에 따라 봉건 사회가 유지되는지 혹은 몰락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중국사회에서 절대 왕권 시기의 질서가 작용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공화정 속에서 중국적 천하질서를 주도하려는 주체의 심상을 재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닙니다.

참고문헌

옌 총니엔(2017). 장성철 옮김. 『청나라, 제국의 황제들』. 한국: 산수야

레지널드 존스턴(2008). 김성배 옮김. 『자금성의 황혼』. 한국: 돌베개

부의(1988). 이충양 옮김. 『황제에서 시민으로(상, 하)』. 한국: 문학과비평사

이리에 요코(2014). 서은숙 옮김. 『자금성 이야기』. 한국: 돌베개

왕이차오(2017). 유소영 옮김. 『자금성의 보통 사람들』. 한국: 사계절

좡롄(2005). 안명자 옮김. 『중국 역사 속의 가장 특색 있는 황제들』. 한국: 어진이

가와시마 신(2013). 천성림 옮김. 『중국근현대사 2, 근대국가의 모색, 1894-1925』. 한국: 삼천리

임명현(2019). 『그때, 중국에선 어떤 일이 있었나?』. 한국: 돋을새김.

장윤미. 2017. 「중국 현대국가 구상과 '권력일통(權力一統)' 원리의 지속」
現代中國硏究 VOL.21 NO.3 :77-125

Arthur Waldron. 2002. 「From war to nation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장

서태후의 두 얼굴
_이화원

신동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서태후의 첫 인상

신빙성 있고 검증된 서태후에 대한 평가는 그녀의 사후 1 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대다수의 독자는 출처에 관심 두기보다 인기투표를 하듯 자신들이 끌리는 이야기를 믿기로 선택합니다. 대다수의 국제 학생은 서태후를 권력에 눈이 먼 사악한 악녀로 처음 마주치고 중국 학생들은 그녀를 배신자 또는 청나라 패망의 원인으로 배우지만 그녀는 크고 작은 공과 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이화원 답사를 준비하면서 서태후에 관한 글을 읽으며 역사학적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있었던 그대로 와는 굉장히 다르게 후세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료를 통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많이 부족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답사 보고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왜곡 됐는지에 대해 더 집중하였습니다. 확실한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증명하기 쉬운 확실한 거짓 증언을 먼저 걷어내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아는 서태후의 이미지를 거짓 증언했던 Backhouse 를 조명하고 어떻게 그의 날조가 밝혀졌는지 설명한 후 거의 한 세기 동안 굳혀졌던 서태후의 이미지를 더욱더 복합적으로 새롭게 서술하는 글을 소개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연기된 북경 답사를 곳 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사랑방 14 기가 이화원을 방문할 때 서태후의 업적과 실패 그리고 억울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Sir Edmund Trelawny Backhouse 는 누구인가?

청나라 말기 중국에 머물렀던 Backhouse 는 서태후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 자신의 중국 체류 경험을 지어내어 중국 전문가로서 서방에서 굉장한 존중을 받았고 이로인해 서양의 서태후 읽기는 그의 이야기를 기초로 진행됐습니다. 1977 년 Trevor-Roper 가 아직 출간되지 않았던 Backhouse 의 Decadence Mandchoue 를 손에 넣게 되고 그의 날조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1992 년 Seagraves 을 필두로 Backhouse 를 넘어선 서태후 다시 읽기의 노력이 시작됐고 21 세기 장정 같은 학자들이 서태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정의 글이 아직은 큰 비판 없이 서태후 변호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Backhouse 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Backhouse 는 영국의 중국 역사학과 중국어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청나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글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서양의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898 년 Backhouse 는 옥스퍼드 대학 학부를 마치지 못하고 북경으로 떠났습니다. 언어 능력이 뛰어났던 그는 1899 년부터 타임스지 주재원 George Ernest Morrison 의 업무를 도와 중-영 번역 업무를 시작하여 청나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1] Morrison 은 중어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Morrison 을 통해 타임스지에 인쇄되는 중국에 대한 글들은 대부분 Backhouse 가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Trevor-Roper 19). 하지만 Backhouse 의 출처는 언제나 분명하지 않았고 그가 왕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2] 그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했지만 한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

[1] The World of Chinese. (2012, July 10) Doran, Joe. The Infamous Sir Edmund Backhouse.

[2]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Bickers, Robert. (2008, January 4) 'Backhouse, Sir Edmund Trelawny, second baronet (1874-1944)'.

1900 년 의화단 사건 이후 Backhouse 는 영국을 대표하는 중국학 학자가 되었습니다. 의화단 사건으로 폐허가 된 집에서 발견한 Ching-shan 의 일기를 번역하여 중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서방 세계에 전달한 결과입니다. 언어학에 능숙했던 그는 중어, 만주어, 몽골어를 쉽게 읽고 번역했고 Ching-shan 의 일기를 번역하여 청나라 황실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는 1910 년 발간 된 “China Under the Empress Dowager”와 1914 년 나온 “Annals and Memoirs of the Court of Peking”이라는 두 권의 저서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당시 청나라에 관심이 있는 모든 20 세기 역사학자들은 Backhouse 와 J.O.P. Bland 의 두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서태후, 동치제, 광서제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Backhouse 의 “China Under the Empress Dowager”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들을 통해 서양 사학자들은 그의 렌즈로 중국을 바라봤고 그는 중국 전문가로 굉장한 존중을 받았습니다. 책이 발간되기 전 그는 영국과 중국에서 쉽사리 자리를 잡지 못했고 영국에선 파산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출간 이후로는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어 자금성 근처 넓은 집을 장만했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Trevor-Roper 269).

1913 년부터 1923 년 동안 그는 교수직을 얻기 위하여 옥스퍼드 대학 Bodleian 도서관에 8 톤 이상의 중국어 서적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이 받은 책 중 모든 책이 진위성과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 굉장한 가치를 갖는 모음집도 있었습니다.[3] 그는 옥스포드 대학의 중문학 체어가 되길 원했지만, 대학에서 받아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중문학, 중국 역사학의 살아있는 최고 권위자라고 자칭했고 당시엔 많은 사람도 그렇게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수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교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Trevor-Roper 254). 하지만 오늘날 Backhouse 의 이름은 학술적인 업적으로 기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 나오는 사료 대부분은 날조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은 매우 설득력 있었기에 대부분의 독자는 의심 없이 내용을 받아들였고 학자들도 그의 사료를 기초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936 년 Lewisohn 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Backhouse 이 번역했다고 주장한 Ching-shan diary 의 일관성이 없음을 비평하며 위작임을 주장하였지만, 당시엔 많은 학자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Trevor-Roper 6). 그 후 Morrison, Duybebdak, Lo Hui-min 같은 중국 전문가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학계에선 20 년대 후반 Backhouse 의 날조를 확실히 증명해냈습니다.[4]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아직 그의 글의 가치를 변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3] Weston Library. Chinese Manuscript & Rare Books.

[4] Lo, Hui-min. The Ching-shan Diary: A Clue to its Forgery. East Asian History, 1, 98–124

Backhouse 의 영향력이 그의 글이 허위로 확정된 상황에서도 새롭게 증명되는 사실보다 아직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ackhouse 의 날조 탄로

Backhouse 의 학술 윤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비난이 있습니다. 첫째는 1900 년 의화단 운동 직후 그가 찾았다고 주장하는 Ching-shan 의 일기의 진위성입니다. 의화단 사건을 통해 청나라 고위 관료였던 Ching-shan 이 사망했고 Backhouse 는 Ching-shan 의 일기를 폐허가 된 그의 집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Backhouse 가 날조한 일기는 Lo Hui-min 의 글을 통해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거짓이 증명 됩니다. 진짜 Ching-shan 에 대한 연구를 통해 Backhouse 의 날조한 일기에서 그의 직책, 가문, 족보 등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들어났습니다 (Lo 118). Backhouse 는 Ching-shan 의 자격을 훔쳐 서태후의 폭력적이고 아이 같고 음란한 성격을 만들어 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혐의의 발견은 옥스퍼드 교수 Trevor-Roper 가 손에 넣은 Backhouse 의 출간되지 않은 자서전으로 시작됩니다. Trevor-Roper 는 “The Hermit of Peking: the Hidden Life of Sir Edmond Backhouse” 라는 이름으로 Backhouse 의 전기를 발표하며 그의 거짓 된 삶과 허구를 세상에 밝힙니다. 그 책을 통해 Backhouse 의 “China under Empress

Dowager"에 나오는 내용 대부분이 허구로 꾸며진 것을 세세하게 밝힙니다. Backhouse는 서방 여러 정부와 회사들을 속이며 연명했고 도망쳐다니다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보호를 받던 중 그의 지어낸 모험담에 감명받은 스위스 영사의 권유로 자서전을 쓰게 됩니다. "Decadence Mandchoue"와 "The Dead Past" 두 권으로 이뤄진 그의 자서전은 당시 발간되지 않았지만 Trevor-Roper 가 Backhouse 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출판되지 않은 Backhouse 의 "Decadence Mandchoue"를 찾게 되고 그 책의 중요한 출처들이 날조되었다는 것과 그의 상습적 사기 행각을 밝혀냅니다. Trevor-Roper 는 Backhouse 의 업적은 소설에 더 가깝고 신뢰할 수 없는 사기극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Trevor-Roper에 따르면 책의 내용과 사료의 출처를 지어낸 것을 넘어 Backhouse 는 습관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Backhouse 는 중어 칼리그래프에 숙달되어 있었고 언어 능력과 서예 실력을 바탕으로 외교관들과 청나라 고위 관료를 속이는 데 능숙할 수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5] 그는 중국 왕실의 고위관료들과의 있지 않은 관계들을 꾸며내어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였고 중국 해군에 전함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결과물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나오는 서태후와의 성적 관계는 사실일 수 없고 선정적인 성적

[5] The New York Times. (1977, April 1977) Theroux, Paul. The English Con Man.

판타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revor-Roper 297).

비교적 최근인 2011 년 Derek Sandhaus 는 Backhouse 의 새로운 전기를 출간하며 Trevor-Roper 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비록 위조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Backhouse 의 글이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단 것입니다. “Hermit of Peking”을 적으며 Trevor-Roper 가 중국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못해서 선정적인 글귀만 볼 수밖에 없었고 그 진가를 골라 찾지 못했단 주장입니다.[6] 의화단 사건에 서태후가 밀접하게 관여했기에 그녀가 참여한 여러 외국 공관과의 회의에서 Backhouse 가 통역을 맡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 서태후가 프랑스와 독일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당시의 소문을 내세우며 Backhouse 의 글이 학술적 가치가 떨어졌을지라도 20 세기 북경의 모습을 누구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유지 되어야 한다고 변호합니다. Backhouse 의 글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고 어느 정도 소설같이 작성된 이유는 폐쇄적이었던 당시 청나라 왕실의 분위기상 “출처”를 보호하는 그 나름의 윤리 따랐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6] Sandhaus, Derek. Décadence Mandchoue the China Memoirs of Edmund Trelawny Backhouse (Chicago: Earnshaw Books, 2011), Introduction, xv- xxiv.

Chang Jung 은 누구인가?

아직 대중들은 분명히 위조가 증명된 Backhouse 가 전하는 서태후의 모습을 더 선호하지만, 그녀에 대한 평가는 2013 년 나온 장정의 책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새롭게 조명받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장정은 중국 출생 영국 작가로 1978 년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 Wild Swan(대륙의 딸)으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반공산당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책이 금서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녀는 1982 년 York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아 중국인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The Diplomats 와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Wild Swan 을 집필하며 서태후란 인물에 관심이 갔다고 답했습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하며 공산당이 금지했다고 생각했던 전족 문화가 서태후의 정책으로 인해 끝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놀랐다고 합니다. 그녀가 배웠던 서태후는 보수적이고 잔인한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태후에 대한 보다 올바른 관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6 년 동안 서태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서태후가 굉장히 강하고 때로는 잔인하다는 것도 인정했지만, 중국 근대화에 누구보다 큰 업적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7] 장정은 지난 100 년간 서태후의 업적이

[7] The Diplomat. (2013, December 18) McDonnell, Justin. Interview with Jung

불공평한 평가를 받는 것이 수정되길 원했기에 새로운 서태후 전기를 작성했습니다. 장정 전의 서태후는 업적을 대부분 인정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했기에 장정의 새로운 서태후 이야기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정의 서태후

장정에게 서태후는 그녀의 책의 부재와 같이 현대 중국의 기초를 만든 통치자로 (The Concubine Who Launched Modern China)로 나타납니다. 장정의 글의 요점은 서태후가 중국 근대화에 큰 업적이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이 점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정은 서태후가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여성이라고 서술합니다. 서태후는 서방과 친선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첫 번째 실질적 청나라 지도자였습니다 (Orville 119). 그녀는 서방과의 무역과 국교를 여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100 년 동안 이뤄졌던 청나라의 폐쇄정책을 끝낼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태후의 주도 아래 서방과의 체계적인 무역이 계획됐고 관세를 받음으로 청나라의 연간 수입은 잠시나마 두 배로 증가했고 축적되는 국고로 식량을 대규모로 수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Chang.

(Chang 116). 서태후는 중국 해군 현대화에 첫번째로 앞장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서태후가 해군 현대화의 사용 될 비용에서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여 이화원 재건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 해군이 준비되지 못했고 청일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정의 발견에 따르면 서태후가 횡령했다는 금액은 굉장히 과장된 것입니다 (Chang 343, 386). 베이징대학의 시초가 된 중국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동문관도 서태후 집권 중 설립되었고 여성의 교육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Chang 530). 그녀는 헌법 제정에도 크게 관여했습니다. 당시 상업, 민사, 형사 분야에 맞는 현대법을 제정하고 법대 또한 설립했습니다 (Chang 801). 더불어 국가 화폐 개혁을 통해 지금 통용 되는 있는 위안화의 사용이 시작되었습니다 (Chang 776). 선거 제도를 도입시키려 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입헌군주제가 되어 그녀가 동경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Chang 795). 하지만 그녀가 시작했던 이러한 개혁들은 그녀의 죽음 때문인지 청나라의 패망 때문인지 그녀의 사후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태후의 업적은 장정 이전 서방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태후의 죽음 후 한 세기가 지난 이 시점 아직 그의 삶과 성품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서태후도 모함 자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상응하는 방어를 하였습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자신의 사진을 찍어 도시들로 배포하였고 서양 여성들과 교류를 통해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Conger 나 Roosevelt 대통령 손녀는 서태후에게서 악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8] 하지만 그 사진들까지도 모함꾼들의 내레이션에 이용되었고 오늘날도 서양에서 전시되는 서태후의 사진 옆에는 Backhouse 나 그의 글을 보고 서태후에 대해 배운 사람들의 설명이 붙습니다. 장정의 글은 Backhouse 의 전기를 통해 그의 밑 낯을 들어냈던 Trevor-Roper 의 글이 받았던 비슷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와 깊은 상의 없이 너무 단순하게 글을 서술하였기에 분석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9] 하지만 이러한 약점은 방대한 양의 역사적 사료를 넓은 스펙트럼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썼기 때문의 Backhouse 의 악영향에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내러티브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비평가는 장정이 인용한 사료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하기도 하지만 찾기 어려운 사료를 읽기 쉽게 서술한 장정의 실력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판단 되기도 합니다.[10]

---

[8] Conger, Sarah. 1909. Letters from Chin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empress dowager and the women of China. Chicago: A.C. McClurg & Co.

[9] The Diplomat. (2015, March 9) Stuenkel, Oliver. Book Review: Empress Dowager Cixi: The Concubine Who Launched Modern China.

[10]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2013, December 5) Mirsky, Jonathan. The Surprising Empress.

장정의 서태후 전기는 두 가지 이유로 큰 가치를 지닙니다. 첫째는 많은 양의 사료를 인용하였기에 쉽사리 반대의견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장정은 그의 책의 서론에서 그가 찾은 자료 대다수가 중국어권 밖 (Outside Chinese-speaking world)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인용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Hong Kong Press Club 의 연설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중국 정부 아카이브 문서를 열람할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11] 이에 맞서 Mark C. Elliott 하버드 Fairbank Center for Chinese Studies 연구소장은 장정의 글의 출처가 그렇게 새로운 정보와 발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12]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돼 있지 않은 자료는 중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학자는 소수이기에 장정의 인용한 중국 제 1 역사 기록 보관소의 1 차 문헌을 직접 찾아본 학자는 많이 없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도 Harvard-Yenching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장정의 책에 사용된 다른 자료들도 거의 모두 중어가 가능하다면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료입니다. Elliott 의 주장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작가는 장정 이전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

[11] The New York Times China. (2013, October 31) Bradsher, Keith. Another Look at the Empress Dowager Cixi, This Time as the Great Modernizer.

[12]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2014, February 6) Elliott, Mark. What's New About the Empress?

둘째로는 서태후를 처음으로 중국의 근대화를 이끈 인물로 등장 새로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장정의 해석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Backhouse 가 시작한 모함의 사기 등으로 생긴 선입견을 버리고 과감히 서태후가 했던 행동에 대해 근대화라는 동기를 서술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태후에 대한 평가는 1992 년 Seagrave 의 “Dragon Lady”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Seagrave 는 서태후가 배후에 있었을 것이라는 암살 사건에 의문점을 가집니다. 청의 마지막 황제의 암살은 서태후가 아닌 다른 경쟁자이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입니다. 장정은 서태후가 일제에 왕이 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암살했다고 해석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현시점 광서제가 독살로 죽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Chang 853). Seagrave 가 서태후를 피해자로 바라보고 당연하게만 받아지고 있었던 그녀의 잔인함을 변호하고 증거불충분 무죄로 해석하는 반면 장정은 서태후의 정치적 잔인함을 인정하되 그에 맞는 합리적인 동기를 제시하는 다른 방법의 변호법을 택합니다. 전통적인 중국 유교 문화에서 여성이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는 없었습니다. 서태후는 어린 왕의 옥좌 뒤에 숨어야 간접적으로 나마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약점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개혁가의 역할을 하였다고 장정은 설명합니다.[13]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여성을 주요 개혁가로 등장시키는 것에

[13] The New York Times. (2013, October 25) Schell, Orville. Her Dynasty.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태후의 부정적인 모습이 두드러져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서양학자들도 서태후에게 개혁의 공을 돌리는 데 수동적이었습니다. Fairbank 는 1960 년도 East Asia 교과서를 통해 서태후가 개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짧게나마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0 (1978)에서는 서태후의 장기집권 실력을 이홍장 같은 개혁 성향 관료들에게 있었다고 썼고 1980 에 나온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1 에선 서태후의 중요성은 아예 언급되지 않습니다. 개혁가로서 전략적인 타협을 한 서태후에게 개혁의 공을 앗아 간다면 실패하고 이기적인 타협의 모습만 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 역시 서방의 오만한 만행에 분노하였지만, 서구식 현대화가 중국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공과 실이 공존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서태후의 공과 실이 복합적이고 공평하게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결론

장정의 해석도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서태후의 밑 낯을 꿰뚫어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긍정적이게 만 서태후를 대한 평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서태후의 역사적 약점이 된 Ching-

shan 의 일기가 위조됐던 혼란의 의화단 사건을 보면 가장 보수적이었던 반기독교, 반외세 성향의 의화단과 손을 잡고 기회주의적으로 권력을 탐한 모습도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함으로 결과적으로 북경이 주권을 더욱 상실한 것입니다. 분명 서태후는 성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더욱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난 100 년 동안 서태후에 대한 평가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이고 책임을 돌리는 것 이상으로 역사적으로는 중요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더욱 객관적인 청나라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상 옥좌 뒤에서 또는 이화원에서 보이지 않게 권력을 쥐었던 서태후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지금처럼 그 당시에도 적었으리라 추측되기에 복합적인 서태후를 이른 시일 내에 찾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가 이화원을 방문할 때 복합적인 서태후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녀가 덜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참고문헌

Bland, J.O.P., and Backhouse, Edmond. “China Under the Empress Dowager: The History of the Life and Times of Tzu Hsi." Hong Kong: Earnshaw Books. 2011.

Chang, Jung. “Empress Dowager Cixi: The concubine who launched

modern China." New York: Anchor Books. 2013.

Conger, Sarah. "Letters from Chin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empress dowager and the women of China." Chicago: A.C. McClurg & Co. 1909.

Fairbank, John K.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0, Late Ch'ing 1800-1911, Part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Fairbank, John K.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1, Late Ch'ing 1800-1911, Part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Lo, Hui-min. "The Ching-shan Diary: A Clue to its Forgery." East Asian History, 1 1991.

Sandhaus, Derek. "Décadence Mandchoue the China Memoirs of Edmund Trelawny Backhouse." Chicago: Earnshaw Books. 2011.

Seagrave, Sterling. "Dragon Lady: The Life and Legend of the Last Empress of China." New York: Vintage Books. 1992.

Schell, Orville., and John Delury. "Wealth and Power: China's Long March to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andom House. 2013.

Trevor-Roper, Hugh. "*Hermit of Peking: The Hidden Life of Sir Edmund Backhouse*." New York: Alfred A. Knopf. 1977.

장융. 이종인 역. 2015. 서태후: 현대 중국의 기초를 만든 통치자. 서울: 책과함께.

웹사이트

The Diplomat. (2013, December 18) McDonnell, Justin. Interview with Jung Chang. Retrieved 30 May 2020 from https://thediplomat.com/2013/12/jung-chang/

The Diplomat. (2015, March 9) Stuenkel, Oliver. Book Review: Empress Dowager Cixi: The Concubine Who Launched Modern China. Retrieved 30 May 2020 from https://thediplomat.com/2015/03/book-review-empress-dowager-cixi-the-concubine-who-launched-modern-china/

MIT visualizing cultures. http://ocw.mit.edu/ans7870/21f/21f.027/empress_dowager/index.html

National Geographic.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history/magazine/2016/11-12/profiles-china-empress-dowager-cixi-emperor-guangxu/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2013, December 5) Mirsky, Jonathan. The Surprising Empress. Retrieved 30 May 2020 from https://www.nybooks.com/articles/2013/12/05/surprising-empress/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2014, February 6) Elliott, Mark. What's New About the Empress? Retrieved 30 May 2020 from https://www.nybooks.com/articles/2014/02/06/whats-new-about-the-empress/

The New York Times. (1977, April 1977) Theroux, Paul. The English Con Man. Retrieved 27 June 2020 from https://www.nytimes.com/1977/04/24/archives/the-english-mandarin-con-man-con-man.html

The New York Times. (2013, October 25) Schell, Orville. Her Dynasty. Retrieved 27 June 2020 from https://www.nytimes.com/2013/10/27/books/review/jung-changs-empress-dowager-cixi.html

The New York Times China. (2013, October 31) Bradsher, Keith. Another Look at the Empress Dowager Cixi, This Time as the Great Modernizer. Retrieved 30 May 2020 from https://cn.nytimes.com/culture/20131031/t31chang/en-us/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Bickers, Robert. (2008, January 4) 'Backhouse, Sir Edmund Trelawny, second

baronet (1874-1944)'. Retrieved 30 May 2020 from http://www.oxforddnb.com/view/article/30513

The World of Chinese. (2012, July 10) Doran, Joe. The Infamous Sir Edmund Backhouse. Retrieved 27 June 2020 from https://www.theworldofchinese.com/2012/07/the-infamous-sir-edmund-backhouse/

Weston Library. Chinese Manuscript & Rare Books. Retrieved July 14, 2002 from https://www.bodleian.ox.ac.uk/weston/finding-resources/guides/china_asia

4 장

마오의 고민: 장개석 접근법 연합전선, 그리고 명분과 실리
_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김대영
고려대학교

I. 장개석의 공산당 탄압

마오는 중국이 외국의 반식민지가 되어 가던 시대에 태어나 군주가 다스리던 청조가 멸망하고 1911 년의 신해혁명으로 수립된 공화정부가 혼란을 겪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약했으며 군벌들은 세력 확장을 꾀하던 와중 지식인 계층 중 일부는 봉건주의의 폐해와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산주의라는 대안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운동은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1921 년 7 월 23 일 중국공산당 제 1 차 전국대표대회가 치외법권 지대인 상해에서 거행되었고, 1922 년 5 월 상해에서 열린 제 2 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코민테른 노선을 수용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부르주아민주혁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손문의 광동정부는 군벌을 제거하고 국가를

통일시킬 수 있는 군대 그리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당 조직을 필요로 했으며, 소련과 손을 잡으면서 중국의 공산당과 연합했습니다. 소련이 코민테른 대표로 파견한 요페(A.Joffe)가 국공합작을 추진하여 1923 년 1 월 26 일 '손孫-요페 공동선언'으로 제 1 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으며 6 월 중국공산당 3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국공합작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1924 년 1 월 중국국민당 제 1 차 전국대표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되어 국공합작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지만, 1925 년 3 월 손문의 사망으로 인해 국민당과 공산당간 갈등이 표면화되었고, 권력투쟁의 승리자가 된 장개석은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어 1926 년 7 월 9 일 전국에 동원령을 선포하고 북벌전쟁을 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북벌의 수행을 위한 정부소재지 이전에 있어서 남창南昌을 주장한 장개석에게 반대한 국민당 좌파와 공산당은 1927 년 2 월 무한으로의 이전을 강행하여 혁명 주도권을 잡으려 하자 장개석은 공산당을 축출코자 했습니다. 1927 년 4 월 12 일 상해로 들어온 장개석 부대는 공격을 개시해 도시를 장악하고 대대적인 공산당 숙청을 단행해 제 1 차 국공합작은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장개석의 남경정부는 무한정부를 흡수하고, 1928 년 동북지방의 군벌인 장작림張作霖이 일본군에 의해 폭사하고 아들인 장학량張學良이 장개석에 귀의하면서 북벌은 와수되었습니다. 1928 년 10 월 장개석은 북벌의 완성으로 남경을 수도로 정하고 국민당정부를 중국을 대표하는 중앙정부로 세웠는데, 아직까지 지방의 군벌세력은 독립적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중국공산당의 도전은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마오는 1927 년 9 월의 추수봉기에 실패한 뒤 정치국에서 추방된 후 군대를 정강산에 집결시켜 놓으며 홍군을 구성한 후 소비에트지구를 건설하게 됩니다. 1931 년 11 월에는 중앙당 간부를 포함한 각 혁명기지 대표들이 제 1 차 전국 노농군 대표대회(工農兵代表大會)를 개최하고 모택동을 주석으로, 주덕을 홍군 총사령관으로 하는 '중앙공농민주정부 中央工農民主政府'(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이에 장개석은 1930 년 12 월부터 1934 년 10 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친 초공전을 단행하고, 1 차-3 차는 다 실패합니다. 장개석이 '먼저 국내의 적을 소탕한 다음 외국의 침략을 막는다'라는 방침 아래 일본과의 전면전을 피하며 군사 50 만을 동원하여 제 4 차 초공전을 벌이자 모택동의 게릴라 전술을 통해 겨우 막고, 일본군의 '열하熱河' 진격으로 작전을 멈춥니다. 그러나 장개석이 1934 년 5 월 일본과 협정을 맺어 시간을 번 뒤 100 만에 달하는 군대를 모집해 제 5 차 군사작전을 시행, 토치카 전술과 동시에 농민과 홍군을 떼어놓으며 경제 봉쇄를 하는 등 지역을 통제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공산당은 1934 년 10 월 대장정이라 불리는 작전상 후퇴를 하게 됩니다.

마오는 '30 여 년의 중국혁명에서 성과가 작은 것은 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전략적인 잘못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전략적 잘못은 진정한 친구를 단결시키지 못하고, 진정한 적을

공격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누가 적인지 친구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계급분석입니다. 마오는 중산계급과 소자산계급의 의식에 따라 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며, 학생과 지식분자들 역시 노동자와 농민대중과 결합할 의사가 있으면 혁명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혁명적이지 않거나 반혁명적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의식에 의해 프롤레타리아와 함께 혁명계급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민족'과 조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신봉수 2009, 75-76)

II. 모택동의 항일 정치 선전

제 1 차 국공합작이 결렬된 뒤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을 제 1 의 적으로 삼아 소비에트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민당의 남경국민정부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항일정책은 처음부터 일관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구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고 항일에 대한 의지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되어 화북에까지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점차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전 차원에서 반제국주의 정책을 내세우다가 일본의 중국 침략이 가중된 후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일정책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만주를 넘어 중국 내지로 확대되자 일본 침략에 저항하는 항일정책을 제시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본래는 장개석 제외 세력과 연합하여 항일전선을 구축하는 반제항일 노선을 제기하였으나 이후에는 통일전선으로 적극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비해 국민당은 공산당 토벌에 전념하며 일본에 대해 소극적 대응을 취하다 일본이 화북지방을 침략하고 국민당 통치기반을 위협하자 비로소 대일항전의 기치 하에 중공과의 연합을 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중국공산당, 장개석, 코민테른의 이해관계가 '항일'이라는 공통목표에 합치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본래 모택동은 장개석과 연장항일을 꾀하지 않고 '장학량과 연대하여 장개석에 반대하는 항일' 전략(연장반장항일)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장개석 역시 '선안내후양외' 정책을 펼쳤습니다.(박정현 2002, 283-284)

중공은 9.18 만주사변을 계기로 대중의 항일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수용했습니다. 1931 년 9 월 18 일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이 사변을 일으켜 만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봉천과 길림성의 성회인 장춘을 점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개석은 소비에트 지구에 대한 군사 작전에 전념하느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반일 운동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애국주의가 고조되자 모택동은 1932 년 1 월 중국공산당이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중의 반일 정서를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해 아무런 방어 태세도 갖추지 않고 있는 장개석

쪽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12 월 중순에는 국민당 제 26 로군이 일본에 대해 '타협'하는 장개석의 정책에 반대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932 년 1 월 중순 중앙국 회의에서 모택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대거 침략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인민의 항일 정서가 고조되고, 국내 계급 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1932 년 4 월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은 일본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으며 '항일 의용군'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마오와 주덕은 국민당이 공산당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 대신 일본과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휴전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1934 년 8 월 홍군의 일부 부대는 근거지 밖으로 나가 저장성에서 적을 혼란시키기 위한 군사 작전을 벌였는데, 그때 공산당은 홍군 부대가 '항일 선봉 부대'이며 북쪽으로 진격하여 침입자들과 싸우러 간다고 선전했습니다. 공산당의 행동은 지식인들 사이에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식인들은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지 않는 것을 엄청난 수치로 느꼈습니다. 장개석은 일본보다 공산당이 더 큰 위협이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나라의 명예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Philip Short 2019, 533-534)

장개석의 쿠데타로 인해 국공합작이 와해되고 나서, 중국공산당을 위시한 중국내 사회주의자 그룹 내에서 1920 년대 말에서 1930 년대 초에 걸쳐 중국이 어떤 성격의 사회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의 쟁점은 중국에 있어서의 주요모순이 자본주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봉건적인 모순을 벗어나지 못한

것인가였지만 결국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신사조파'가 주장했던 소위 반식민지반봉건론(半植民地半封建論)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1935 년 1 월 대장정 초기 모택동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홍군이 연안에 도착한 지 얼마되지않아 발발한 중일전쟁은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모순을 중화민족과 외세 즉 일본군국주의의 모순으로 돌려놓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민족해방운동은 전쟁이라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즉 중국인들은 민족적인 위기감을 다시금 느끼게 되고 국공내전의 중단과 일본에 대한 일치항전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조봉래 2011, 529-530)

1934 년부터 1935 년에 걸쳐 일본의 중국침략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며 1935 년 6 월에 일본국 사령관 매진은 국민당 정부대표 하응흠과 협정을 체결하여 화북성과 북경, 천진의 국민당 지부의 해산과 하북성의 중국군을 철수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1935 년 8 월 1 일 사천성 모아개에서 '항일구국을 위해 전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합니다. 이전의 선언과 달리 즉각적인 민주주의와 대중무장을 요구하지는 않고, 국민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전쟁행위의 중단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항일통일전선이 반국민당적인 통일전선을 주장함에 반해 무엇보다도 항일을 중화민족의 존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파악하고, 단순히 노동자, 농민만이 아니라 상공업부르조아를 포함한 일체의 동포의 광범한 결집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8.1 선언'은 국민당을

타도하지 않는 통일전선이고 이전에 일제와 백색권력 모두를 타도한 내용을 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이건일 2014, 298-299)

1935 년 12 월 27 일 와요보에서 개최된 당의 활동분자회의에서는 "일본제국주의책략에 대한 반대에 대하여 논함"이라는 보고를 통해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통일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서안 사변 당시 중공은 장개석에 대한 강경 입장을 취하는 대신 평화적 해결을 선택했는데, 이는 장개석을 제거할 시 남경정부 실권은 친일파인 하응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때 모택동을 비롯한 일부는 "남경정부는 이미 적극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여 장학량, 양호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음으로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 대처를 주장하였습니다.(오수열 2012, 205) 이후 국민당에 공동항일을 제기하는 등 중공은 정세에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대중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서안사변을 통해서 국민정부가 연안에 대해 공격을 중지하면서 홍군은 국부군에 편입-개편하여 합법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중공당은 위기에서 벗어나 세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택동 리더십이 중공당 내에서 반석 위에 올랐으나 지도노선에 대한 당내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오수열 2012, 208-209)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장개석과 일본 침략의 의미를 바라보는 마오의 관점이 점차 변화했습니다. 1936 년 4 월 마오는 '일본에 항거하고 장개석에 반대한다(抗日反蔣)'는 구호가 역효과를 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마오는 장원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일본과 싸우고 내전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장개석과 싸우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한 달 뒤, 마오는 모든 제국주의 열강을 단 하나의 연합으로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본과 영국,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Philip Short 2019, 576)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두하는 주장에 따르면, 모택동은 일본군과 싸우자는 홍군의 병사들과 공산당 지도자들에 반대했습니다. 중일전쟁을 모든 중국인들이 단결해 일본과 맞서 싸우는 전쟁으로 보지 않았으며 자신이 장개석 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중일전쟁을 장개석, 일본 그리고 공산당의 삼파전으로 간주해 일본군이 장개석을 파멸시키는 기회로 보았다고 합니다.(Jon Halliday 1968)

이러한 배경에서 에드거 스노의 공산당 근거지 방문이 허락되었습니다. 공산당의 대의를 서방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 월 홍군은 와야오부의 본부를 더 외지고 빈곤한 바오안으로 옮겼습니다. 바오안은 광막한 황토 지대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풍화로 만들어진 붉은 사암(沙巖) 절벽에 있는 동굴에 거주했습니다. 언덕에서는 흙탕물 강이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 마오는 에드거 스노에게 예언적인 발언을 합니다. 다음은 그들이 7 월 16 일에 나눈 대화입니다.

중국의 주권을 좀 더 희생하면… 일본의 진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토피아적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일본 해군은 중국해를 봉쇄하고 필리핀, 시암(태국), 인도차이나, 말라야,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를 탈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은 이들 지역을 전략 기지로 활용할 겁니다…..(하지만) 중국은 매우 큰 나라입니다. 나라의 모든 땅 한 치 한 치가 전부 적의 칼날 아래 놓이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정복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사 일본이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그 당 위에 사는 1 억 명 심지어 2 억 명의 중국인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파도는 중국인의 저항이라는 암초 위에서 산산이 흩어져 그 힘을 잃을 것이며, 혁명적인 중국 인민이라는 거대한 인적 자원의 저수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와 자유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1936 년 7 월 16 일, 모택동은 에드가 스노우와 면담하면서 중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된 모든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며, 만리장성 이남 지역뿐 아니라 만주 역시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중국 식민지인' 한국은 포함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잃은 영토의 독립을 실현한 후 한국인들이 일제의 쇠사슬로부터 해방되고자 한다면 독립 투쟁에 열정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대만에도 해당되며 내몽골 같은 경우는 중국인과 몽골인이 살고 있는데 일본을 쫓아내고 자치주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항일 군대가 점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그런 적이 없으며 전시에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민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이는 장개석의 억압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Edgar Snow 1968, 110-112)

1936 년 여름과 가을 내내 공산당은 사적으로나 국민당과 국민당 지도자들에게 휴전을 체결하고 일본에 대항하여 힘을 합치자고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8 월 뒤늦게나마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항일 연합이 소련의 이해관계에 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마오는 과거 1920 년대에 존재한 국공 통일전선을 부활시키고, '대중화통일민주공화국(大中華統一民主公和國)'을 수립하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홍군 근거지도 의회제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오는 스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의 자유가 박탈된 인민에게 혁명 과업은 즉각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독립 쟁취입니다. 만일 국가가 없다면 사회주의를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그 안에서 사회주의를 시행할 것 아닙니까?" 심지어 마오는 홍군이 명목상 국민당 군대의 지휘 계통에 들어가 공식적으로 국민당 군대의 일부가 된다면 홍군의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산당 군대와 영토에 관한 당의 통제권만 인정된다면 그 어떠한 양보도 할 수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마오는

장개석에 대한 의심도 표현했습니다. 장개석이 정말로 전략을 바꾸었는지 의심스러우며 그가 앞으로도 계속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Philip Short 2019, 577)

III. 서안 사변과 국공합작

섬서성 북부 와요보에서 열린 당의 활동분자 회의에서 한 모택동의 보고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1935 년 12 월 27 일)에서는 장개석을 '1927 년에 혁명을 배반'하고 '매국 역적'이며 '중국을 팔아먹으려는' 정책을 편다면서 '중국을 멸망시키려는 일본제국주의자'와 같은 선상에 둡니다.

대토호, 대악덕인사, 대군벌, 대관료, 대매판들은 아주 일찍부터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혁명은(어떠한 혁명임을 막론하고) 무조건 제국주의가 하는 짓보다 나쁘다고 과거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매국 역적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은 망국의 노예로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민족적 경계선을 없애버렸다. 그들은 이해관계 면에서 제국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그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 장개석이다. 이 매국역적들의 진영은 중국 인민의 철천지 원수라고 하겠다. 만일 이 매국 일당들이 없었다면 일본제국주의가 지금처럼 이렇게 제멋대로 횡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바로 제국주의의 앞잡이인 것이다.

또한, 서안 사변 당시 소식을 접한 공산당원들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저녁에는 군중집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마오, 주덕, 주은래는 장개석을 군중 앞에 끌어내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궈타오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내야 할 사건이었다.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요일 오전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장궈타오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국민당 정부 타도와 장개석 처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끔찍한 내전을 시작했으며, 치욕스러운 유화 정책으로 일본에 부역했고, 불과 며칠 전 공산당의 화해 제의를 최종적으로 거절하고 중국의 방어보다는 '비적 소탕' 정책을 우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오의 입장은 좀 더 신중했습니다. 마오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장개석이 친일적이었다고 언명했습니다. 그리고 장개석의 구금은 '혁명적 의의'가 있으므로 공산당은 이를 당연히 저지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개석을 타도하는 데 공산당이 앞장서서는 안 되며, 더 적절한 방식은 장개석을 '인민의 심판대' 앞에 끌어내 그의 죄가 널리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훗날 장궈타오의 해석에 따르면, 모택동의 발언은 공산당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장학량이 직접 장개석을-마오는 장개석을 '원흉'이라고 표현했습니다.-처리하도록 부추긴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오는 난징 정부의 좌익 및 중도 세력의 지지를

끌어내 거국적 항일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익 국민당 지도자들이 시안 사건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hilip Short 2019, 580)

하지만 서안사변 이후 1936 년 12 월 28 일의 '장개석의 성명에 대한 성명'에서 '지난 10 년 간 그릇된 정책을 바꾼다'며 성명에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등의 칭찬할 만한 구절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혁명파를 '반동파'라고 부른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무사히 서안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공산당의 조정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민족생존을 위한 견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모택동 2001) 12 월 29 일 전보, The Situation and Our Policy After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Xi'an Incident 에서는 남경 정부의 항일파들이 조금 더 유리해졌지만, 친일파가 다시 우세를 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점을 밝힙니다. 가능하면 정부 내외에서 공산당의 세력을 확장하여 좌파 및 중도파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동시에 홍군 역시 강화시킨다는 것이 계획입니다.(Chou 1981, 91-92)

1937 년 7 월 23 일의 〈일본의 공격에 반대하는 방침, 방책 및 그 전도〉에서는 장개석의 명칭이 '선생'으로 바뀝니다.

장개석 선생과 전체 애국 국민당원들은, 자신의 방침을 견지하며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며 타협과 양보를 반대하고 끝까지 항전하여 실질적으로 원수들이 준 모욕에 응답해 줄 것을 여러분들에게 바란다.

홍군을 포함한 전국의 군대는 장개석 선생의 선언을 지지하며 타협과 양보를 반대하고 끝까지 항전하자!

공산당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의 선언을 충실히 집행하며 동시에 장개석 선생의 선언을 계속적으로 지지하면서 국민당원 및 전국 동포와 함께 국토 방위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며 싸우고, 일제의 주저-동요-타협-양보를 반대하고 끝까지 항전하자.

모택동은 1937 년 8 월 22 일 중공중앙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국민당과의 관계는 합작 후에도 공산당이 독립자주 원칙을 견지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8 월 25 일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자>에서는 국민당의 정책이 안 바뀌는 것에 대해 '전면적인 민족적 항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합니다. 9 월 29 일의 <국공합작 성립 후의 절박한 임무>에서도 역시 정부, 군만으로는 항일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각 당-각파-각계-각 군 등 모든 단체와 개인을 밧줄에 묶듯 단단히 통제해야 하며 민중을 대하는 방법이 변화하여 국민당의 전제정책을 대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후 11 월 12 일 <항일전쟁의 형세와 임무>라는 보고를 통해 독립성을 상실하고 국민당으로 기우는 '우경투항주의'를 엄중히 경고하며 공산당의 자주독립원칙과 통전에서의 영도권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이병주, 김기훈 2002, 147-148)

모택동은 신민주주의론을 통하여 당시 중국적 상황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국민당 주도의 순수 부르주아 민주혁명이 아니고, 무산계급과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고 중간파를 흡수하는 통일전선을 통하여 이룩해야 할 신민주주의 혁명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민주주의 혁명은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단계이므로 무산계급과 공산당이 통일전선에서 영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자연스럽게 강조했습니다.(이병주, 김기훈 2002, 150)

항전관은 중국공산당과 같이 항일투쟁을 이끈 특정 주도세력을 전시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일전쟁을 주도한 중국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신 또 다른 항일투쟁의 주체로서 중국국민당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전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집단기억이 중국공산당 중심의 항일투쟁사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조은경 2014, 211)

1939 년 7 월 15 일에는 중국공산당의 중앙위원회가 국공합작을 선포하며, 황제의 후손인 인민의 노력을 통해 항일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선언하며 투쟁을 통해 첫째, 독립과 자유 그리고 해방을 이뤄내 영토와 주권을 회복하며, 둘째,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해 국회를 설립하여 헌법을 통해 인민 해방을 이루며 셋째, 중국 인민이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사보타주와 방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엄숙히 선언하는데, 첫째, 손문의 삼민주의가 현재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당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둘째, 국민당

정권을 뒤집어 엎기 위한 폭동을 선동하는 정책을 포기하며 소비에트화 운동을 취소, 지주의 땅을 강제로 압수하는 정책을 그만두며, 셋째, 현재 소비에트 정부들을 철폐하고 국가 권력이 국내에 통합되기 위해 민주주의의 실천을 부르짖으며, 넷째, 홍군은 현재 이름을 포기하고 국민정부의 군위원회의 국민해방군 하 통솔, 편입되어 항일 전선을 향해 행군할 준비를 한다.

즉, 항일을 위해 세력 통합의 필요성을 느껴 국민당과 합치는 동시에 소비에트화 노력을 그만두는 것을 공산당이 선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hou 1981, 94)

1937 년 7 월 23 일 '일본의 공격에 반대하는 방침-방책 및 그 전도'에서는 7 월 17 일에 장개석 '선생'이 담화를 발표하여 항전하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외문제에 있어서 '국민당으로서는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 발표한 선언 중에서 처음으로 올바른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어, 우리와 전국 동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937 년 8 월 25 일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자'에서는 '항전 문제에 있어서 국민당의 진보는 찬양할 만한 것이며, 이것은 중국공산당과 전국 인민이 다년간 희망하던 바'라고 하면서 이러한 진보를 환영하되 '인민의 항일운동에 대해 자유를 주지 않고, 정부기구에 대해 원칙적인 변화를 하려 하지 않으며, 인민생활에 대해 개선하려는 방침이 없고, 공산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합작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1937 년 9 월

29 일 '국공합작 성립 후의 절박한 임무'에서는 장개석씨의 담화는 전국에서의 공산당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었으며, 서로 단결하여 나라를 구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나, 아직도 필요한 자기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만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되었든 양당 간의 통일전선은 그 성립은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1938 년 5 월 연안항일전쟁연구회에서 한 모택동의 강연 '지구전을 논함'에서는 국민당이 영국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영-미가 투항하라고 하지 않는 한 투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1940 년 5 월 4 일 '항일역량을 적극 발전시키며 반공완공파의 공격에 저항하자'에는 국민당 통치영역에서는 국민당의 법률과 명령과 사회적 관습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이용해 온건하고 정확하게 투쟁하며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모택동 2002)

모택동은 항일대학에서 행한 장호張浩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속내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목전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국민당과 타협을 해야 하며, 국민당과의 일시적 타협이 결코 투항이나 무산계급의 이익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광범한 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국민당에 투항하지 않으며 오직 항일을 향해 가는 것이다. 국민당과의 합작은 항일 단계에서의 합작이니 본당 동지들은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동시에 8 로군 정치부는 10 가지 문제를 선정하여 문답형식으로 설명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통해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에게 '4 대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야기된 홍군 내의 동요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중 장개석이 항일을 영도하도록 옹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현재의 장 위원장은 이미 항일 쪽으로 돌아섰으며, 우리 공산당이 주장하는 항일민족전선을 받아들이고, 원래 우리를 공격하려던 군대를 항전을 위해 전선으로 이동시켰으며, 공산당이 제기한 항일 정강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를 옹호해야 한다. 결코 장 위원장 개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항일 주장을 실행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며, 그가 확고하게 항일민족전선의 길을 걷도록 격려하는 것이다."(이건일 2014)

IV. 제 2 차 국공내전

제 2 차 국공합작이 깨진 후, 1945 년 4 월 30 일의 On the United Front 에서는 장개석은 내전 진행에 대한 꿈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서안 사건 전까지 계속 공산당을 억압한 동시에, 항일 투쟁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국민당군을 억제했습니다. 한때는 장학량 장군에게 그의 임무는 공산주의자들을 쓸어버리는 것이며, 일본군을 싸우러 가면 보직에서 해임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서안 사건 후 내전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일본군과 싸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량을 가두고 양호성을 해외로 파견하여 동북군과

17 로군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후 송자문은 장개석이 석방된 후 남경정부를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8 년 동안 이 약속은 지켜졌지 않았습니다. (Chou 1981, 216-217)

일본 패망 후인 1945 년 8 월 16 일에는 장개석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까지 이릅니다. Actively Propagate Opposition to Civil War and Dictatorship and Expose Chiang Kai-shek's Deceitful Plot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장개석은 내전을 위한 그의 선전 강도를 높여 왔으며 공산당 탓을 하며 인민을 공포로 몰아넣어 내전을 펼쳐 독재를 계속하고자 한다. 지난 5-6 년 동안 장개석은 해방구의 군대를 인정하거나 구호물품을 보내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갑자기 명령을 기다리며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 이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괴뢰군을 자신의 군대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Chou 1981, 247)

예전에 마오는 항일전선에 참가하는 8 로군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일전쟁은 본당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가 결정한 정책은 100 분의 70 의 힘은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 쓰고, 100 분의 20 의 힘은 국민당과 타협을 하는데 쓰며, 100 분의 10 의 힘은 일본군에 대항하는데 쓰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을 견제하면서 후방 지역에서 당 조직을 건설하는데 힘을 썼으며, 대중노선을 강화해 온 것입니다.

V. 마오의 사상 체계

이미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1935 년 12 월 27 일)에서 마오는 장개석이 중국 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매국역적들의 진영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비록 1945 년에 이르러 역설한 것이기도 하지만, 장개석은 내전 진행에 대한 꿈을 버린 적이 없는 데다가, 서안 사변 전까지는 계속 공산당을 억압하면서 항일 투쟁을 하고자 하는 국민당군을 억제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3 년 전저우에서 '2.7 학살' 사건을 겪은 이후 마오는 자산계급이 국민 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920 년대에 통일전선을 염두에 둘 때, 공산당에 우호적인 국민당 좌파와의 협력을 고려할 때마저도 고민했습니다. 마오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문제점을 고사성어인 '첩상가옥(疊床架屋)'이라는 말로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침대 위에 침대를 놓고, 집 위에 집을 얹는다'는 뜻으로 쓸데없이 반복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마오의 말은 만일 통일전선이 공산당이 친공산주의 성향의 국민당 좌파, 즉 생각과 목표를 공산당과 공유하는 국민당 좌파와 연합하기 위한 전술이라면, 공산당과 국민당 좌파 둘 중 하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어느 편이 사라져야 하는가였습니다.(필립 쇼트 2019) 국민당 좌파에 대해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개석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모순론'을 통해 답할 수 있습니다. 주은래가 <On the United Front>(April 30, 1945)의 I. On the Anti-Japanese National United Front 에서 설명하기도 하는 이 모순론은, 모순을 활용해 다수의 지지를 얻어 소수를 반대하며 적들을 하나씩 격파해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본래 교조주의 사상을 비판하기 위해 '어떠한 사물도 모두 모순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순이 없으면 세계는 없다. 세계는 불완전한 모순들 사이에서 진보를 이루어낸다'고 정의한 것으로부터 모택동은 제국주의와 반봉건 등 외부적 장애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모택동은 냉철한 자기분석과 진단을 통해 반식민지국가 중국의 경우, 중국민족과 제국주의 국가와의 모순 및 중국인민과 봉건제와의 모순 중 주요 모순이 바로 제국주의와 반식민지(중국) 사이이기에 국공합작이 정당화된다고 했습니다. 즉,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으로 중국의 계급모순에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런 변화에 따라 계급모순은 민족모순에 비해 부차적인 지위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마오는 수많은 동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장개석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배후에서 기만전술을 펼치면서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당과 장개석을 태하는 어투를 관찰할 때,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서 하는 언행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있어 위 내용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참고문헌

박정현. 2002. “중국공산당 항일정책의 변화과정”. 사총, 55(0),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신봉수. 2009. “계급과 민족의 변증법”. 한국정치학회보, 43(1), 한국정치학회

오수열. 2012. “서안사변(西安事變)의 전개와 중국정치에 미친 영향”. 한국동북아논총, (64), p205.

이병주, 김기훈. 2002. [기획연구] “국권장악 책략으로서의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정책 연구(1937-1949)”. 전략연구

조은경. 2014. “한 · 중 항일기념관의 전시 내러티브와 동아시아 역사인식”. 47(),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조봉래. 2011. “현대 중화민족주의의 형성과 그 본질: 孫文과 毛澤東의 민족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64), 한국중국학회

모택동 지음, 김승일 옮김. 2001.《모택동 선집》1 권, 서울: 범우사

모택동 지음, 김승일 옮김. 2002.《모택동 선집》2 권, 서울: 범우사

모택동 지음, 장차근, 김정계 옮김. 2008.《모택동사상과 중국혁명》, 서울: 평민사

모택동 지음, 남종호 옮김. 2002.《모택동 자서전》, 서울: 다락원

유신순 지음, 신승하 외 옮김. 1994.《만주사변기의 중일 외교사》,

서울: 고려원

장융, 존 핼리데이 지음, 황의방, 이상근, 오성환 옮김. 2006.《마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서울: 까치

필립 쇼트 지음, 양현수 옮김. 2019.《모택동 1. 혁명을 향한 대장정, 1893~1937》, 서울: 까치

알렉산더 판초프, 스티븐 레빈 지음, 심규호 옮김. 2017.《모택동 평전: 현대 중국의 마지막 절대 권력자》, 서울: 민음사

이건일 지음, 2014.《모택동 vs 장개석: 중국국공혁명사》, 서울: 삼화

Snow, Edgar. 1968. *Red Star Over China* New York: Grove Press

Chou, En-lai, 1981. *Selected works of Zhou Enlai*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5 장

중일전쟁과 마오쩌둥의 항일 활동 평가 _마오쩌둥 기념관

윤지원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1937년, 일본은 만주사변에 뒤이어 중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일전쟁으로 일본의 야심이 본격화되자,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각기 분열하여 내전 중이던 중국은 '항일'이라는 구호 아래 연합 전선을 이루고 일본에 맞서기 시작하였지요. 이때 중국공산당은, 중국 전체에서 일어난 반일 감정을 제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필립 쇼트 2019, 484) 지도자 마오쩌둥 아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Twitchett and Fairbank(eds.) 1986, 620). 일본의 침략이 중국공산당에게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기회가 되었던 것이지요(Van de Ven 2018, 146). 마오는 중일전쟁을 거치며 공산당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로써 결국은 국민당에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오의 항일 이력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명확한

것과는 달리, 아주 상반된 평가들이 혼재하고 있어요. 그의 행적은 이제 바꿀 수 없는 과거가 되었는데, 그 모습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사실 마오가 항일에 임한 태도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국민당에 맞서기 위한 레토릭의 차원이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항일에 나선 마오의 진심 여부에 대하여 왜 양면적인 평가가 나오게 되었는가'로 바뀔 수 있지요. 본 연구는 마오의 항일에 대한 상반된 평가들을 먼저 살펴보고, 당시 마오의 항일 전략이 어떠했는지를 추적하여 상기한 연구 질문에 대답해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문헌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마오쩌둥의 항일투쟁기를 그리고 있는 책과 논문들을 주로 참고할 것입니다. 1차 자료로는 마오쩌둥의 연설문이나 글, 그가 응답했던 인터뷰 등을, 2차 자료로는 관련 단행본과 논문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마오쩌둥과 중일전쟁에 관한 대조적 평가

마오쩌둥의 생전 중국에서 중일전쟁은 단순히 마오와 공산당의 훌륭한 영도를 보여주는 사건으로만 기억되었으나(Coble 2007, 397-395), 마오 사후 시간이 흐른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의 라이벌이었던 장제스와 국민당의 당시 행적도 점차 긍정적으로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Coble 2007, 397-402).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의 항일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아니며 이 시기 마오의 리더십도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Coble 2007. 401), 마오와 공산당만이 항일전쟁의 주체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기 마오의 항일 이력에 대해서는, 사실 매우 대조적인 평가가 혼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융(張戎)과 핼리데이(Halliday), 그리고 그에 반하는 벤톤(Benton)과 천(Chun)의 논쟁은 이러한 양면적 평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장융과 핼리데이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마오』는 마오의 항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표적인 저작으로, 이들은 마오가 '국민당을 일본의 손으로 멸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로써 중일전쟁을 바라보았다며 그가 진심으로 일본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음을 주장해요. (장융, 존 핼리데이 2006, 271) 그러나 벤톤과 천은 '마오는 정말 괴물이었는가? (*Was Mao really a monster?*)' 라는 이름의 책을 편집해 내어 장융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오의 항일 이력에 대한 장융의 비판은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며(Gregor and Lin(eds) 2010, 61), 마오는 다만 홍군의 전멸을 피하면서 전략적으로 일본에 맞서던 전술가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Gregor and Lin(eds) 2010, 143-144). 이는 마오의 항일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마오를 직접 대면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에드거 스노(Edgar Snow)가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요. 그는

중국공산당과 함께 지낸 생활을 자신의 저서 『중국의 붉은 별』에서 회상하면서, '항일에 대한 의지가 결연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 또한 확고하다'고 홍군을 평가합니다(에드거 스노 2013, 143). 스노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슈람(S. Schram) 또한 저서 『毛澤東』에서 마오의 진심 어린 항일정신이 중국인들을 움직였다고 서술하고 있어요(S. 슈람 1977, 205).

그러나 다시 한편으로, 일본의 학자 엔도 호마레(遠藤譽)의 주장은 장융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중일전쟁 시기 마오가 비밀리에 일본과 결탁하여 국민당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엔도 호마레 2019). 중국에 파견되었던 소련인 고문 피터 블라디미롭(Peter Vladimirov) 또한 1943년 8월 28일 본인의 일기에 "현재의 단계에서 중국 혁명은 일본 제국주의를 최우선으로 겨냥해야 하지만, 마오에게 그것은 그냥 말뿐인 것(mere words)"이라고 쓰고 있기도 합니다(Vladimirov 1975, 145).

이러한 양면적 평가는, 전술하였다시피 마오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 평가들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해서는 당시 마오의 진심을 직접 탐색하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 연구는 중일전쟁 시기 마오의 마음을 엿보기 위해, 당시 그가 세운 항일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시도는 마오의 항일 전략에서 그의 항일 활동과 일본관에 대한 생각을 읽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건국 이후 마오의

말년까지 중국의 대일정책을 분석하는 데에도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항일 전략

중일전쟁을 연구한 학자 래너 미터(Rana Mitter) 교수는 중국의 항일에 있어 공산당과 마오만 주목받고, 그 외 장제스와 같은 다른 행위자들은 분명한 업적이 있었음에도 그저 역사 속에 묻혀버렸음을 지적합니다(Mitter 2014, 380). 이에 그는 장제스를 재평가하며, 그에 대하여 "전쟁은 이겼지만, 나라는 잃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Mitter 2013, 6). 이 간단한 문장은, 장제스가 중일전쟁의 승리에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담당했지만 결국 내전에서는 마오에게 패하고 말았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지요. 사실 중일전쟁이 시작될 즈음에는 국민당이 공산당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공산당보다는 국민당이 더 많이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마오의 항일 이력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들이 평가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마오쩌둥이 항일에 나서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마오의 항일 전략을 통하여 이에 대한 그의 심상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마오의 항일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민족적 통일전선의 결성입니다. 항일에 대한 마오의 전략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민족과 항일을 위해 계급적 투쟁을 잠시 멈추고 함께 단결하여 '민족통일전선(The national united front)'을 결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Schram eds 1999, 94-97). 그는 대지주나 대매판계급과는 달리 민족자산계급(The national bourgeoisie)은 유동성이 있는 계급이며, 따라서 그들을 공산당으로 흡수시키고 함께 항일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요(Schram eds 1999, 86-102). 마오는 중국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자산계급과 지주 또한 "나라 없는 노예"(Schram eds. 1999, 614)가 되고 말 것이라며 이들 계급의 동조를 직접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국민당과 결코 협력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마오는 나라가 없으면 공산주의 또한 실현할 수 없다는 구국의식 아래 이들을 '폐쇄주의자'라 칭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로스 테릴 2008, 331-339). 중국 대중의 애국심 자극 및 국민당과의 합작이라는 전략이 후일 마오의 승리 요인으로 제시될 만큼이나(S. 슈람 1977, 202)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그의 항일전략은 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당시 국민당보다 훨씬 열세에 있던 입장으로써 사상적으로나 세력적으로나 흡수당할 위험성이 있는 전략이기도 했어요. 마오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경계했는데, 이는 그가 남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영도권을 다투는 것은 자산계급이다. 자산계급의 동요와 불철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 역량과 올바른 정책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계급이 도리어 무산계급을 꺾고 말 것이다.”(모택동 2001, 336 ; Schram eds 1999, 656).

따라서 통일전선의 형성에 있어 공산당의 관건은, 본질적으로 색채가 다른 계급들을 끌어 모아 안으면서도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며 국민당에 흡수되지 않을 것인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오는 ‘공산당을 비롯해 통일전선에 포함된 모든 세력이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모택동 2002, 224 ; Schram eds 2004, 527 ; Schram eds 2004, 243) 논리를 내세워, 공산당이 국민당에 흡수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국민당과는 분명히 궤를 달리하겠다는 마오의 의지는 ‘국민당과 모든 일을 사전 논의할 필요는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는 그의 발언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Schram eds. 2004, 316 참고 ; 모택동 2002, 240-241 ; Schram eds. 2004, 546-547).

이렇게 국민당에 대한 태도를 확고히 하여 외부적 독립을 지켜낼 조건을 마련한 마오는, 내부적으로는 ‘민족’과 ‘계급’을 일체화시킴으로써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통일전선과 목적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 계급투쟁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족과 계급의 투쟁이 같은 방향에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하고 두 개념의

일체화를 시도하였습니다(모택동 2002, 240 ; Schram eds. 2004, 546).

전술했던 것처럼 마오는 민족자산계급을 설득하면서 그들 또한 일본의 침략으로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Schram, eds. 1999, 614), 이는 결국 그들도 나라를 잃으면 언제든 억압받는 계급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민족과 계급의 일체화'가 미묘하게 이루어진 일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오의 일체화 전략은 비단 민족자산계급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어요. 아래의 인용문은 청조와 대립하였던 비밀 조직 가로회(에드가 스노우 1985, 97)를 상대로 보인 마오의 태도인데, 이를 통해 그가 공산당과 가로회의 이념을 함께 엮어내며 항일을 설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회에 가해진 지배 계급의 압제는 우리에게 가해진 것과 정말 거의 똑같습니다! … …여러분은 부자를 공격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지원하며 우리는 지방의 토호를 공격하고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견해와 입장은 특히 우리의 적과 나라를 위하는 길에서 서로 매우 가깝습니다."(로스 테릴 2008, 333-334)

따라서 '민족통일전선 구축'이라는 마오의 항일 전략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항일이라는 목적 아래 모으고 일본에 대항하되, 그 가운데 민족과 계급의 이념을 적절히 조화하여 최종적으로는 공산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오의 전략은 그 스스로가 직접 언급한바, 공산당을 "위대한 대중적인 당으로"(모택동 2002, 223 ; Schram eds. 2004, 526) 만들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지요.

마오의 두 번째 전략은 '선전'과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항일에 대한 의지를 고조시키는 역할도 담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산당에 우호적인 사람과 세력을 양성하고 이로써 공산당의 영도를 실현하게 해 주는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오는 공산당이 인민들을 "참을성 있게 교양"하여, "자기자신을 개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모택동 1992, 1074-1075. ; 毛泽东 1983b, 113-114), 일찍이 10대 구국 강령을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교육이라고 명시해 놓고 (모택동 2002, 31 ; Schram eds. 2004, 31-32) 실제로 '항일'과 '공산주의'를 교육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스노의 저작 『중국의 붉은 별』에서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러한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을 받은 청년 수천 명이… …'더욱 풍성한 삶'을 이룩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선전 활동과 실천적 행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개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수백만 인민에게 심어 주었다."(에드거 스노 2013, 154).

이때 스노가 홍군과 함께 본 연극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당시 공산당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공산당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항일정신을 고취하면서 동시에 국민당의 장개석을 일본에 협조한 매국노로 선전하고 있었어요. (에드거 스노 2013, 144-155). 물론 이러한 스노의 경험은 중일전쟁의 직전, 즉 국공합작이 합의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공합작 이후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본격적으로 국민당과 손을 잡은 이후에는 국민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다소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상기한 것과 같이, 열세였던 공산당이 되레 흡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산당에 대한 선전 및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직 항일하기만을 원하는 비교적 충실하고 곤란을 이겨낼 수 있는 지식인이라면, 그들을 다방면으로 받아들여 교양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입당조건이 구비된 일부 지식인들을 입당시켜야 한다.… …다소라도 쓸모가 있는 비교적 충실한 모든 지식인에 대해서는 적당한 사업을 맡기도록 해야 하며, 그들을 잘 교육하고 인도하여 장기적 투쟁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약점을 극복하게 하며, 혁명화 · 대중화시키며, 노당원 · 노간부와 어울리게 하며, 노동자 · 농민 출신의 당원과 어울리게 해야 한다."(모택동 2002, 329 ; 毛泽东 1983a, 88-89).

상기한 글에 드러나 있듯이, 마오는 선전 및 교육을 통해 지식인들을 공산당으로 흡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공산당의 거점이던 연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 상당수가 중산층 지식인이었다는 점을 참고한다면(Mitter 2013, 190-191) 이러한 전략은 당시 마오가 공산당 확장을 위한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공산당은 국민당과의 협력으로 승리한 전투를 자신들의 대단한 성공으로 치켜세웠으며(Van de Ven 2018, 144), 마오는 합작 이후에도 국민당이 공산당을 억압하고 있음을 본인의 연설에서 공공연히 밝혀(Mitter 2013, 224) 공산당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는 등, 공산당을 위한 선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본고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마오의 세 번째 항일 전략은 바로 유격전과 후방전입니다. 마오는 중국이 유격전, 즉 게릴라전과 운동전으로 일본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가 강조한 또 한 가지는 바로 '후방전'이예요. 마오는 적의 후방에서 작전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실제로 공산당의 팔로군은 일본군의 측면이나 후방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모택동 2002, 56 ; Schram eds 2004, 107). 그는 중국의 영토가 매우 넓으므로 일본은 사실상 포위 되어있는 형국이라고 보고(모택동 2002, 131 ; Schram eds 2004, 527 ; Schram eds 2004, 325),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서 일본의 운수로를 교란하는 것은 특별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였어요. (모택동 2002, 56 ; Schram eds 2004, 117). 그러면서 마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대량의 군대가 운동전을 하고 팔로군은 유격전으로써 이를 보조한다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모택동 2002, 57 ; Schram eds 2004, 117).

여기서 ‘대량의 군대’와 ‘팔로군’은 대비되며, 당시 팔로군에 대비될 만한 ‘대량의 군대’라 함은 사실상 국민당 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팔로군이 후방에서 유격전을 진행하며 국민당을 보조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후방전을 치르는 부대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으며, 마오는 자신이 불리한 조건에서는 결코 싸움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Schram eds. 1966, 56-57). 이러한 언사들은 그가 공산당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전략의 목적은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군의 배후에서 공산당의 영도를 실현할 진지를 건축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Twitchett and Fairbank(eds.) 1986, 614). 공산당은 “재빠르게 일본군 배후 지역으로 대거 진입”(레이 황 2009, 221)하여, 그 지역을 공산당의 실효 지배 아래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마오가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이외에도 하나가 더 있었어요.

“전쟁 수행과정에서 중국은 많은 일본군을 포로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무기탄약을 탈취하여 자신을 무장할 수 있을 것이고……중국군대의 장비를 점차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모택동 2002, 132 ; Schram eds. 2004, 325 ; Schram eds. 1999, 266)

군의 장비 문제는 국공합작 이전, 홍군 시절부터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공산당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무기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적으로부터 빼앗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는 하였어요(에드거 스노 2013, 345). 국공합작 이후에는 장제스가 팔로군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공산당은 다시 적군인 일본군의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요(로스 테릴 2008, 342. ; Schram eds. 2004, 136). 따라서 일본의 후방과 운송로를 공격한다는 것은 일본군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나 물자를 탈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는 뜻이예요. 실제로 마오는 유격전의 기습 작전과 그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유격전을 하며 획득하는 무기들은 유격부대를 점차 강화하여 정규군을 보완할 것이다"(Schram eds. 2004, 180) 라고 쓴 바 있는데, 이는 유격전의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물자 획득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매복의 대상을 나열하며 적의 트럭, 기차, 선박 등 운송수단들을 함께 거론하였고, 여기서 무기와 자원을 찾아 탈취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Schram eds. 2004, 189-191). 마오의 기본 전술서에 쓰여 있는 아래의 글은 그러한 그의 생각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적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무기를 탈취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적이 우리의 허기를 채워 줄 빵인 것처럼 행하여 그를 즉시 삼켜버려야 한다."(Schram 1966, 53)

상술한 마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일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결국 항일이라는 기치 아래 끌어 모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선전하여 공산당을 인적으로 확장하는 데에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의 지배 지역을 넓히면서 군비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오가 세워놓은 항일 전략,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공산당을 강화하는 전략이었음을 제시합니다. 이는 그가 항일 활동을 아예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항일 활동에 공산당을 보전하고 확장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예요. 역설적이게도, 이는 공산당의 세력이 적고 열세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략의 결과

전술하였듯이, 마오의 전략은 일본과 장제스, 이중의 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대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전선의 수립은

적은 세력으로 항일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이었던 동시에, 마오와 공산당이 민족의 위기에 대하여 진중하게 나서고 있음을 공공연히 보여주는 기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 주적이었던 국민당과 손을 잡음으로써 그들의 공격을 공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합니다. 다만 국공의 협력관계는 전쟁 초기에만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전쟁이 후반부로 가면서 다시 소원해졌어요(래너 미터 2020, 364). 하지만 내전을 멈추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시 극히 열세였던 공산당에게는 상당한 유익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공산당의 선전 활동은 꾸준히 계속되었습니다(FRUS 1945, 1948 참고).

또한 마오는 줄곧 주장하던 '유격전'으로 일본군을 상대하여, 국민당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마오가 장제스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유용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아래의 글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유격전을 내세움으로서 전시 동맹에 깊숙이 개입하기 위해서 국민당이 필요로 했던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마오는 상대적으로 군비 부담이 낮아 국민당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재정 수입을 배분할 수 있었다. 국민당 통치 구역에서의 삶이 갈수록 가혹하고 불평등해지는 동안, 공산당은 점점 희망의 상징이 됨과 동시에 국민당과 명확히 비교되었다."(래너 미터 2020, 343)

마오는 일본군과의 정면충돌은 되도록 피하여 항일에서는 비교적 적은 부담을 지고, 일본군의 배후지에서 통신선을 비롯한 각종 자원을 이용해(FRUS 1944) 국민당이 점령한 곳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행적들은 마오가 항일 활동을 하되, 동시에 공산당을 보전하고 나아가 확장시키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즉, 하나의 전략으로 두 가지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었던 셈이지요. 전쟁 이전까지는 미미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공산당이 전쟁 이후에는 국민당과 비등한 세력에, 그보다도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전략은 실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중일전쟁이 세계대전과 맞물리면서, 마오의 전략은 공산당 내부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기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0년대에 들어서 그의 관심은 "군사 영역으로부터 민간 영역으로 더욱 뻗어 나갔고"(Van de Ven 2018, 152),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공산당에 무기가 부족했던 이유로 일본군과의 교전도 기피했습니다('Diary of Fu Bingchang', entry of 7 April 1945. 재인용 : Van de Ven 2003, 59). 하지만 전쟁을 거치며 이루어 낸 공산당의 성장은 실로 괄목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당의 연합국이었던 미국까지도 중국공산당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어요(래너 미터 2020, 408-409. ; 알렉산더 판초프, 스티븐 레빈 2017, 492) 반대로 국민당은 대일 전쟁에서의 자원 소모와 내부의 부패로

인해 국내는 물론 국외적으로도 신뢰를 상실해 갔습니다(래너 미터 2020, 398-405). 중일전쟁이 막 발발했을 때와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셈이지요. 국민당은 쇠락했고 공산당은 득세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일본의 항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공동의 적이 사라진 양당은 종전 이후 협력을 시도하기는 했으나 끝내 타협하지 못했고, 다시 시작된 내전에서 결국 마오와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래너 미터 2020, 462-469).

맺는 말

중국의 국부 마오쩌둥은 항일로 세력을 키우고 대륙의 승자가 되었지만, 정작 그의 항일 활동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들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극명하게 나뉘는 평가의 기준은 '마오가 항일을 위한 항일을 하였는지, 아니면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항일을 하였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마오가 제시한 항일 전략의 주요한 세 가지 방안을 살피면서, 그의 전략이 결국은 공산당을 확장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고에서 살펴본 그의 항일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민족자산계급과의 단결을 도모하고 통일전선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공산당의 확장과 대중화를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실제로 그 기대에 부합하였어요. 소련인 고문 피터 블라디미롭은 1942년 10월 22일,

자신의 일기에 '마오가 "노동자와 농민(workers and peasants)"의 당에서 "사람들(People's)"의 당으로 공산당이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을 항일투쟁의 이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적어둔 바 있는데(Vladimirov 1975. 69), 이러한 자료는 마오가 항일전쟁에 나서면서 공산당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당시 국민당에 비해 열세였던 공산당에게는 오히려 흡수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오는 다만 협력할 뿐, 공산당과 국민당은 다른 개체임을 분명히 하며 내부적으로는 사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선전과 교육은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오는 선전과 교육을 통해 공산당의 이념을 공유하고 전파하여,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당원들을 규합하였습니다. 마오쩌둥 평전을 집필한 로스 테릴은 공산당이 국민당과 협력하면서도, "정신 속 어딘가에는 혁명에 대한 약속이 자리 잡고 있었다"(로스 테릴 2008, 341) 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당이 가지는 이념과 사상이 국민당과의 협력과는 별개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마오의 세 번째 전략은 후방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전투를 치르고 진지를 건설하며, 물자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최대한 군사를 잃지 않으면서 자원을 획득하고, 동시에 공산당의 지배력이 닿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그가 일본을 상대로 아예 싸우지 않았거나 혹은 싸울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항일 활동을 하되 공산당의 확장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의 전략으로 항일도, 공산당 세력의 확대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일 전략 자체가 결국은 공산당의 세력이 커지는 데 기여했고 후일 내전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 마오의 항일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history.state.gov/

"The Ambassador in China (Gaus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1, 1944. FRUS: DIPLOMATIC PAPERS, 1944, CHINA, VOLUME VI. https://www.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4v06/d424. 검색일: 2020.08.18.

"The Ambassador in China (Hurley)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23, 1945. FRUS: DIPLOMATIC PAPERS, 1945, THE FAR EAST, CHINA, VOLUME VII.

"The Ambassador in China (Stuart) to the Secretary of State". December 29, 1948. FRUS, 1948, THE FAR EAST: CHINA, VOLUME VII.

-단행본

래너 미터 지음, 기세찬, 권성욱 옮김. 2020. 『중일전쟁 : 역사가 망각한 그들 1937~1945』, 파주 : 글항아리.

레이 황 지음, 구범진 옮김. 2009. 『장제스(蔣介石) 일기를 읽다 : 레이 황의 중국 근현대사 사색』, 서울 : 푸른역사.

모택동 지음, 김승일 옮김. 2001. 『모택동 선집』 1권, 서울 : 범우사.

모택동 지음, 김승일 옮김. 2002. 『모택동 선집』 2권, 서울 : 범우사.

모택동 지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모택동선집출판위원회 편. 1992. 『모택동선집』 제 3 권, 北京 : 민족출판사.

알렉산더 판초프, 스티븐 레빈 지음, 심규호 옮김. 2017. 『마오쩌둥 평전』, 서울 : 민음사.

에드거 스노 지음, 홍수원, 안양노, 신홍범 옮김. 2013. 『중국의 붉은 별』, 서울 : 두레.

에드가 스노우 지음, 洪秀原, 安亮老, 愼洪範 옮김. 1985. 『중국의 붉은 별』 상권, 서울 : 두레.

엔도 호마레 지음, 박상후 옮김. 2019.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 : 모택동은 왜 일본군의 進攻에 감사했나』, 고양 : 타임라인.

장융, 존 핼리데이 지음, 황의방, 이상근, 오성환 옮김. 2006. 『마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상권, 서울 : 까치글방.

필립 쇼트 지음, 양현수 옮김. 2019. 『마오쩌둥』 1, 2권, 서울 : 교양인.

로스 테릴 지음, 박인용 옮김. 2008. 『마오쩌둥』, 서울 : 이룸.

李志綏 지음, 손풍삼 옮김. 1995. 『毛澤東의 私生活』 3권, 서울 : 고려원.

Benton, Gregor and Chun, Lin(eds.). 2010. *Was Mao really a monster? : the academic response to Chang and Halliday's Mao, the unknown story*, London ; New York : Routledge.

Mitter, Rana. 2013. *Forgotten ally : China's World War II, 1937-1945*, Boston : Houghton Mifflin Harcourt.

Mitter, Rana. 2014. *China's war with Japan, 1937-1945 : the struggle for survival*, London, England : Penguin Books.

Schram, Stuart R. editer, Hodes, Nancy J. associate editor. 1999. *Mao's road to power: Revolutionary writings 1912-1949* Volume V, Armonk, N.Y. : M.E. Sharpe.

Schram, Stuart R. editer, Hodes, Nancy J. associate editor. 2004. *Mao's road to power: Revolutionary writings 1912-1949* Volume

VI, Armonk, N.Y. : M.E. Sharpe.

S. 슈람 著, 金東式 譯. 1977. 『毛澤東』, 서울 : 博英社.

Twitchett, Denis and Fairbank, John K.(eds.). 1986.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3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 de Ven, Hans J. 2003. *War and Nationalism in China: 1925-1945,* Abingdon, Oxon: Routledge.

Van de Ven, Hans J. 2018. *China at war : triumph and tragedy in the emergence of the new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Vladimirov, Peter. 1975. *The Vladimirov diaries : Yenan, China, 1942-1945*, London : Robert.

Mao, Zedong.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 by Stuart R. Schram. 1966. *Basic tactics*, New York : Fredrick A. Praeger.

毛泽东 作, 毛沢東文献資料研究会 編, 1983a, 『毛泽东集』 第2版 第7卷 1939·9-1941·6, 東京 : 蒼蒼社.

毛泽东 作, 毛沢東文献資料研究会 編, 1983b, 『毛泽东集』 第2版 第8卷 1941·7-1942·12, 東京 : 蒼蒼社.

-학술논문

Coble, Parks M. 2007. “China's “New Remembering” of the Anti-Japanese War of Resistance, 1937–1945”, *The China Quarterly* No. 190.

Jin Xiaoding, “A critique of Jung Chang and John Halliday, *Mao: The unknown story*” in Benton, Gregor and Chun, Lin(eds). 2010. *Was Mao really a monster? : the academic response to Chang and Halliday's Mao, the unknown story*, London ; New York : Routledge.

Timothy Cheek, “The new number one counter-revolutionary inside the party: academic biography as mass criticism” in Benton, Gregor and Chun, Lin(eds). 2010. *Was Mao really a monster? : the academic response to Chang and Halliday's Mao, the unknown story*, London ; New York : Routledge.

Van Slyke, Lyman. “The Chinese Communist movement during the Sino-Japanese War 1937-1945” in De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s.). 1986.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3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장

이백의 달빛은 오늘, 이곳을 비추고
798 예술구 후속세대 리송송을 중심으로
_798 예술구

강민아

Johns Hopkins university

798 예술구 후속세대와 리송송

1976 년 문화대혁명이 종식된 이후, 중국 현대미술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동원되는 정치적 수단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예술적 저변을 넓혀갔습니다. 문혁 이후 세대의 예술가들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의 퇴보 속에서 새로운 예술적 실천의 장으로서 베이징의 798 예술구(艺术区)를 탄생시킵니다. 이는 과거 소련의 무기 공장이던 구역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세입자로 모여들면서 형성된 장소로서 현대 중국미술의 독자적인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982 년 베이징시가 사회주의식 집단형 발전 도식을 탈피한 도시계획방안을 공표하고 황루이(黃銳, 1953~)를 비롯한 문혁 이후 세대의 선구적 예술가들이 798 예술구를 고안하였으며 2005 년도 베이징시는 798 구역의 공업건축 군을

‘역사문화 보호지역’으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2008 년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798 예술구는 국제적인 이목을 끌어들였으며 공연히 현대 중국을 상징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였지요.

오늘날 중국의 예술가들은 또다시 새로운 ‘현대 중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문혁 이후 세대의 선구적인 노력에 힘입어 798 예술구가 활기를 띠게 된 시점으로부터도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798 예술구는 국제 미술시장의 대자본을 끌어들이게 된 동시에 극심한 상업화를 겪고 있습니다(박정희, 2012). 가난한 예술가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그곳을 떠났으며 상품성 있는 작업에 자본이 편중되는 등 상업적 셈법이 예술구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 년도를 전후로 국제 미술시장의 자본이 급속도로 유입되는 동시에 미술시장이 통합되면서 중국의 미적 기준과 글로벌한 미적 기준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고 있지요. 특히 글로벌한 미적 기준 앞에서 ‘중국적 모티프’의 미적 가치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베이징 출신의 작가, 리송송(李松松, 1973~)은 798 예술구의 후속세대면서 ‘중국적 모티프’를 광범위하게 활용합니다. 그는 2000 년에 등단하여 초기에 798 예술구에 작업실을 얻은 멤버이기도 하였는데, 1973 년생으로 황루이나 아이웨이웨이(艾未未, 1957~)를 비롯한 798 예술구의 주역들과는 십수 년 차이가 납니다.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1989 년의 톈안먼 사태를 기억하는

사이세대(in-between generation)이지요. 그는 2004 년도에 독일 아샤펜부르크의 99 갤러리(99 Gallery)에서 첫 해외 개인전을, 이후에도 뉴욕, 런던, 루체른, 바덴바덴, 볼로냐 등에서 해외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이처럼 리송송은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회화 소재로서는 중국의 역사적인 장면을 비롯해 마오쩌둥, 루쉰, 1970 년대의 하방지식인과 같은 상징적 인물, 쿵푸나 동방홍(东方红)과 같은 문화적 심벌, 혹은 체 게바라, 칼 마르크스와 같은 사회주의 혁명가 등 이른바 '중국적인 것'의 모티프를 폭 넓게 활용합니다. 회화 소재는 신문이나 잡지의 사진과 일러스트에서 얻은 원본 이미지에서 가져옵니다. 이 원본 이미지의 구성을 대체적으로 유지하고 그 위에 격자 무늬를 그어 그리드(grid)를 만듭니다. 이어서 그리드에 따라 서로 다른 색감의 유화 물감이 그리드를 채우도록 하고 질감은 두껍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역사적 장면에 대한 설명적 묘사는 제한하는 한편 유화의 색감과 거친 붓 자국을 통해 정서적 분위기가 극대화되지요.



[그림 1] 리송송, Khmer Rouge (红高棉), 2006, acrylic on canvas

이 글에서는 리송송의 작업을 통해 문혁 이후 세대보다도 후속세대인 그가 중국적인 미적 기준과 국제적인 미적 기준의 긴장 구도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추적해봅니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리송송에 대한 연구로서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적 기준의 충돌 속에서 그가 작업하는 역사재현 방식의 의미를 탐구하려 합니다. 그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중국적 모티프'를 활용한 작업 중에서도 중국 근현대사를 회화의 소재로 활용한 역사화(history painting) 작업을 연구대상으로 삼으며 구체적으로는 2015 년도에 이탈리아 볼로냐의 MAMbo(Modern Art Museum of Bologna)에서 열린 개인전《Historical Materialism》이후의 작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써 문혁 이후 세대 예술가들에게 상징적인 장소이던 798 예술구가 오늘날 후속세대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심미적 가능성을 안고 있는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세대와 역사화의 위상과 역사재현의 변천

리송송의 역사화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중국 미술사에서 역사화의 위상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혁명이 종식되기 이전 시기, 즉 마오쩌둥의 통치 시기에 예술과 정치권력이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예술 또한 사회주의 혁명의 연장선에서 인민과 당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며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사회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조가 그 선두에 있었지요. 여기에서 대장정과 옌안 시기, 항일전쟁, 그리고 국공내전 등의 역사적 장면이 수많은 작품의 소재로 채택되어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고, 모범적인 사회주의 시민으로서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거나 전쟁에 참전하라는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그림 2] 참조).





[그림 2] 탕다시, *인민의 사과(人民的苹果)*, 1973
[그림 3] 자크 루이스 데이비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Le Serment des Horaces)*, 1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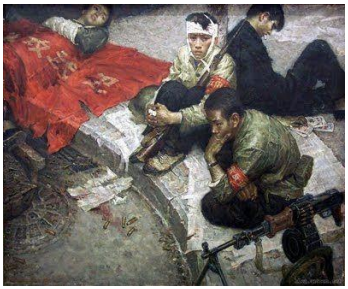
역사적 장면을 정치 선전이나 민중 계몽의 수단으로 활용한 회화 전통은 서구 미술사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은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 1748 ~ 1825)의 1785 년 작품으로 호라티우스 삼형제가 공화국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며 경례하는 고대 로마사의 한 장면을 담고 있지요. 이 작품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훗날 프랑스 혁명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박희숙 2010). 위인들의 역사적 순간을 그린 역사화가 민중 교화의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사재현 방식이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널리 활용되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요.

문혁 이후 세대의 중국 신미술에서도 역사적 장면을 회화 소재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술사가 우홍(巫鸿,

1945~)이 중국 신미술이 1989 년 톈안먼 사태를 기점으로 '당대적 전향(contemporary turn)'을 맞이하였다고 지적한 것에 기반하여 1980 년대와 1990 년대 이후를 구분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1979 년의 《싱싱미술전(星星美展)》과 1985 년의 신조미술운동 등을 이끈 1980 년대의 전위예술가들은 자신들을 1919 년의 5·4 운동의 계몽정신과 연계시키며 현대 서양 미학과 철학을 수용하여 중국 미술을 현대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우홍 2011: 30-36). 그들은 문화대혁명의 '진정한 정신'을 재현하기 위해 쇼펜하우어, 니체, 샤르트르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예술과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재성찰에 몰두하였습니다(Lü peng 2012: 314). 한편에서는 서구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조형미와 추상에 대한 탐구가 이뤄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혁 시기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거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호소가 표출되었던 것이지요(권은영 2009: 330).

그 중에서도 역사재현을 소재로 한 작품에는 문혁 시기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오샤오화는 문혁 종식 직후에 등장한 '상흔예술(傷痕藝術)'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문혁의 흔적이 가득하면서도 현실적인 역사적 소재를 취하여 문혁 시기에 대한 비애와 비판을 투시합니다. [그림 4]에서는 거리에 앉은 홍위병 소년들의 공허한 표정은 문혁 시기가 남긴 상처의 쓸쓸함을 실재적으로 전해줍니다. 한편, 1980 년대 후반 작품인 우산쫜의 〈홍색 유머_대자보〉는 문혁시기가 남긴 폐허를 있는 사실적으로

재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당대의 현실로 끌어들이지요(우홍 2011: 19-20). 작품은 문혁시기를 상징하는 혁명적 표어와 개혁개방 이후의 상업광고가 혼재된 대자보 형식의 원고와 찢긴 종이가 방을 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림 4] 가오샤오화, *왜(为什么)*, 1979

[그림 5] 우산짠, *홍색 유머_대자보(紅色幽默_大字报)*, 1986

한편, 1989 년 톈안먼 사태 이후 중국 미술계가 깊은 좌절과 분열, 그리고 세계화를 비롯한 사회적 격변을 경험하면서 중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장면을 담은 역사화가 정치선전 혹은 정치운동의 목적을 위해 동원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85 신조미술운동을 주도한 작가들이 해외로 망명되고 깊은 균열과 좌절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였으며 자조와 조롱, 냉소만이 지식인들이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을 것입니다(윤재갑 1996: 73; 권은영 2009: 335; Lü Peng 2012: 170). 물론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존재하였지만 이는 작가 개인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된

작업이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적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정치적 팝아트와 시니컬 리얼리즘(Cynical Realism)의 성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림 6] 왕광이, *weather report*, 1989


[그림 7] 장샤오강, *천안문(天安门)*, 1993


[그림 8] 웨민쥔, *처형(处决)*, 1995

1990 년대의 작품들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집단적인 예술운동이라 보기 어렵지만 중국적 아방가르드의 사조에서 역사화의 성격을 갖는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그림 7], [그림 8]은 1990 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그려낸 톈안먼 광장의 모습입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왕광이(王廣義, 1957~), 장샤오강(张晓刚, 1958~), 웨민쥔(岳敏君, 1962~) 세 작가가

1989 년 톈안먼 사태 이후에 이 장소를 소재로 작품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요. 이들은 톈안먼 사태의 폭력성과 비극적 실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조롱과 냉소가 지배적인 시대적 분위기에도 저마다 전력투구하고 있던 예술적 실천의 연장선 상에서 서로 다른 형상으로 톈안먼 광장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혁시기부터 개혁개방과 톈안먼 사태에 이르기까지 중국 현대미술사에서 역사재현에 대한 관심은 줄곧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선명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술적 실천이 집단적인 정치선전이나 정치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될 수 있었던 시기는 1989 년에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중국 미술계는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혁명에 우호적인가 혹은 비판적인가의 문제에만 몰두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정치사회적 지평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798 예술구의 상업화 이후 미술시장이 국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중국의 역사적 소재를 비롯한 '중국적 모티프'의 심미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화는 더 이상 집단적인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졌으며 세계적 미적 기준이 개별적인 역사적 소재를 압도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중국 미술계에서 역사화는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추상성과 내러티브를 통한 파편적 현실의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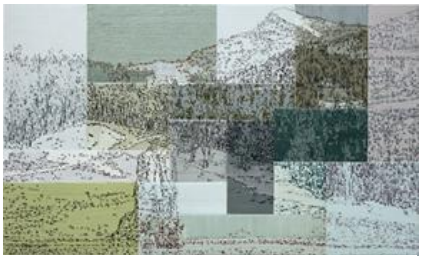
그렇다면 문혁 이후 현대 중국 예술을 상징하는 798 예술구의 후속세대인 리송송의 역사화 작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는 '중국적 모티프'를 풍부하게 활용하였는데 특히 1949 년 이후 중국 공산당 정치사의 공식적인 이미지에 주목하였습니다(Lü Peng 2012: 347). 여기에서는 리송송을 둘러싼 기존의 비평 구도를 추상성과 내러티브, 그리고 파편적 현실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파악하여 어떻게 추상성과 내러티브의 상충되는 해설이 동시에 도출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일찍이 2004 년도부터 국제전시에 데뷔한 이후, 그의 작품은 서구 비평가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추상과 표현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잭슨 폴록(Paul Jackson Pollock, 1912~1956), 로버트 리만(Robert Ryman, 1930~2019) 등 서구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추상화가들에 비견되었습니다(Bündge 2015). 한편, 문혁 이후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웨이웨이도 등단 초기부터 그를 주시하며 동양회화의 함축성을 읽어냅니다(Ai 2014: 222). 그의 작품이 가진 힘은 시각적 효과의 강렬함, 논리, 빛 또는 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정신과 감정, 자유의지로부터 나온다는 지적이지요.

한편, 리송송이 작품에 남겨 놓은 내러티브의 가독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드를 나누는 것이 재현의 전통보다도 조형적 심미성에 주목하는 서구 모더니즘의

상징적인 작업이지만, 리송송의 유화 그리드 작업은 내러티브의 가독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Bündge 2019). 즉, 그리드를 활용하여 비-재현성을 더하고 있지만, 역사적 장면이라는 소재자체가 갖고 있는 재현성을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관찰이지요([사진 1], [그림 9], [사진 2], [그림 10] 참조). 그러므로 작품의 관람자는 작가가 재현하고 있는 본래의 역사적 장면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그로부터 연상되는 역사적 내러티브를 작품 감상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사진 1] 히틀러의 블론디 산책

[그림 9] 리송송, *개산책 II (走狗 〈二〉)*, 2015, oil on aluminium panel





[사진 2] 1972 년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그림 10] 리송송, *연극 감상(看戏)*, 2004, oil on canvas

또한, 그가 공식기억에서 빗겨 있는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내러티브를 조명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Feng 2018). 캡션으로 부여된 작품의 제목은 공식기억으로 군림해온 거대 내러티브와 일정 거리를 확보하게 하지요. 이러한 시각에서 [그림 11]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핵탄두와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인데, 회화의 제목은 디즈니 《백설공주》(1937)의 표제가인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을 패러디하여 붙여졌습니다. 이때, 화면을 가로질러 거대하게 배치된 핵탄두는 현대 전쟁을 상징하는 극한의 폭력성과 위압감이라는 일반적인 기호로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캡션으로 달린 제목이 힌트가 되어, 핵탄두는 관 속에서 왕자를 기다리는 백설공주의 모습과 중첩되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은 공주를 걱정하며 다시 깨어나길 기대하는 일곱 난쟁이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반 시민들이 핵무기를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걱정과 두려움, 희망과 기대감과 같은 미묘하고도 폭넓은 감정의 스펙트럼을 음미할 수 있지요.



[그림 11] 리송송, *Someday My Prince will Come(某一天我的王子将到来),* 2007, oil on canvas

이처럼 리송송의 역사재현 방식은 추상성과 내러티브를 동시에 감지하게 합니다. 아이웨이웨이가 제시한 '파편적 현실(Fragmented Reality, 片断的真实)' 개념은 이러한 이중성을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주지요. 그에 따르면 리송송의 유화 그리드 작업은 조각난 역사적 장면의 백 개의 모순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로 포개어져 서로를 지탱하게 하여 세부적인 파편에만 존재하는 역사의 진실을 드러냅니다(Ai 2014: 219). 즉, 원본 이미지를 파편화 한다는 점에서는 형식상으로 추상적인 재현 방식이지만, 조각난 역사적 장면이 한 회화를 이루면서 역사 속의 복잡한 모순과 우연성, 임의성을 감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풍부한 내러티브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웨이웨이는 작품을 해설하려는 욕망이 논리적 해설이 아닌 흥분과 피로감을 동반하는 최면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리송송이 재현하는 '파편적 현실'을 이루는 요소로서

‘추상성’과 ‘내러티브’라는 상반되는 두 특성을 미술감상의 경험 속에서 조화시키고자 합니다.

역사적 시공간으로의 유인과 심미적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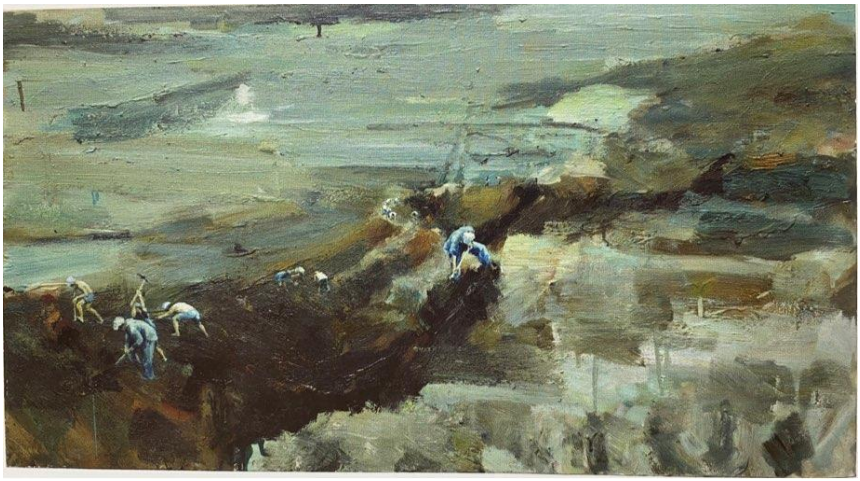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것처럼, 리송송은 중국과 서구 미술계의 주목을 동시에 받으며 수많은 비평이 오가는 가운데 자연스레 중국 현대미술의 후속세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업을 서구 모더니즘의 언어로 포착하려는 서구 비평가들의 시각에서도, 최면 상태로 이끄는 동양회화의 위력을 투시하는 아이웨이웨이의 시각에서도, 중국 현대미술의 후속세대를 바라보는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이 장에서는 기존의 비평을 참조하고 아이웨이웨이가 제시한 ‘파편적 현실’ 개념에 기대되, ‘관조’와 ‘노동’을 키워드로 그가 분투하였을 심미적 실천 과정을 추정해보려 합니다. 아이웨이웨이는 리송송의 작품이 흥분과 피로감을 동반하는 최면상태에 이르게 하는 격렬한 감정적 동요를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다음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듯이 작품과 현실 사이에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면서도 현대 중국의 역사적 장면을 비롯한 ‘중국적 모티프’를 왜 그토록 오랜 기간 몰두하여 작품 소재로서 담아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파편적 현실'은 리송송을 비롯한 21 세기 중국 당대예술의 현주소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평론가 뤼펑(吕澎, 1956~)은 오늘날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예술 생태(ecology of art)'의 변화와 그 주역인 1970~ 80 년대생 예술가들이 지닌 독특한 감수성을 '파편적 현실'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합니다(Lü peng, 2012). 문화대혁명 이전의 중국과 이후의 중국, 그리고 전통적 중국과 서구가 바라보는 중국 사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가들은 더 이상 현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중국이 후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중국 예술시장에서 국제적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체가 아닌 파편적인 현실이 예술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장면의 관조

2004 년도 아이웨이웨이, 비평가 펑보이(冯博一, 1960~)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현실을 재현하기에는 사진이나 비디오가 더 수월하며 회화가 직접적으로 현실을 다룰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남깁니다(Ai&Li&Feng 2004). 또한, 역사적 장면을 회화 소재로 삼는 의도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에, 처음으로 역사적 장면을 작품으로 그리게 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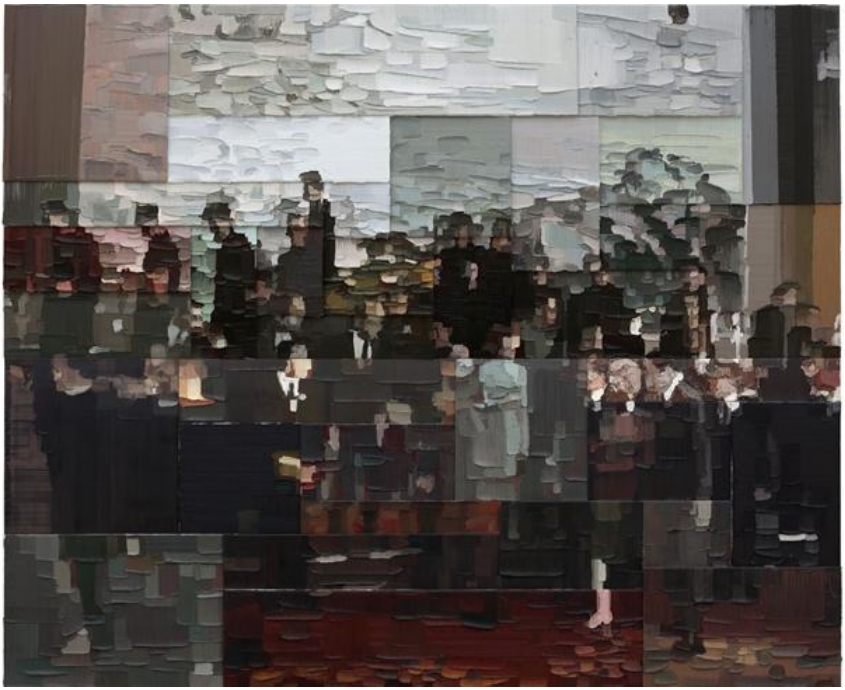
[그림 12] 리송송, *Digging*, 1999, oil on canvas

펑보이: 역사적 주제를 다룬 오래된 사진들에 줄곧 관심을 갖고 있었나요? (생략) 왜 혁명전쟁 시기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건설, 그리고 문화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을 소재로 선택했나요? 이러한 이미지를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미지가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가요?

리송송: 딱히요. 예를 들면, 병사들이 참호를 파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본래 사진은 우연히 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사진을 들여다보는 과정에 매료되었어요. 우리가 책에서 사진을 보면, 대부분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책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조금 더 유심히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림을 그리게 된 거 같아요. 사실, 정말 평범한 장면이었어요. 제복 입은

사람들이 황무지를 파내고 있었어요. 설명을 읽고나서야, 그들이 한국전쟁 시기에 참호를 파던 인민지원군인 걸 알았죠. 장면을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면, 그 안의 다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략)

이상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작품과 작업 방식을 정돈된 언어로 설명하는 대신에 자신의 경험을 전하여 관람자에게 자유로운 감상과 해석의 권한을 양도합니다. 다만, 그가 역사적 장면이 담긴 원본 이미지를 조금 더 유심히 바라보았던 것처럼, 관람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작품을 감상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또다시 캡션이 힌트를 제공해주는데, 인터뷰에서 그가 언급한 작품([그림 12])의 경우 현재진행형 동사 'digging(파낸다)'을 제목으로 붙여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즉, 한국전쟁 시기 인민지원군이 전쟁에 참전하여 참호를 파냈다는 사실로부터 '파낸다'라는 동사 하나만을 남겨 놓은 것이지요. 관람자는 '파내다'라는 한 단어에 기대어 작품을 마주보게 됩니다. 이로써 그가 최초에 원본 이미지를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았던 관조의 경험이 관람자에게 전해집니다.



[그림 13] 리송송, *Tempest(崩)*, 2019, oil on aluminium panel

최근의 작품 〈Tempest〉 (2019)에서도 그가 관조의 경험과 역사적 재현 사이에서 분투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작품은 1972 년 닉슨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으로부터 작품의 기반이 되는 이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데탕트의 신호탄이 된 미중회담 이후 양국의 핵심 인사들은 인민대회당 건물에 전시되어 있는 20 세기 중국 산수화의 거장인 푸바오스(傅抱石, 1904~1965)와 쿠안샨유에 (关山月, 1912~2000)의 작품 〈이 땅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있다 (江山如此多嬌)〉 (1959)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흩어졌는데, 바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그 순간에 정지한 이미지입니다. 이례적으로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코멘트를 덧붙이면서, 사진이 아닌 영상을 정지한 화면을 붓질을 통해 재구성하면서 이미지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자신의 한계를 부딪쳤다고 밝히기도 하였지요(Li 2019).



[그림 14] 푸바오스, 쿠안샨유에, *이 땅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江山如此多嬌)*, 1959

그의 짧은 코멘트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큐멘터리에서 본래의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언급 이외에는 2004 년도의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내러티브에 대한 특정한 설명을 회피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대신에 작업을 하면서 자주 들었던 곡인 베토벤의 〈Tempest〉로부터 작품의 제목을 지었다는 얘기를 서두에, 그리고 뒷배경의 작품을 그린 푸바오스에 대한 일화를 끝에서 늘어놓습니다. 푸바오스는 마오쩌둥이 지은 시 〈이 땅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있다(江山如此多嬌)〉로부터 작품의 제목을 붙이는 등 정치적 작품활동에도 줄곧 참가하였는데, 1960 년 초기에 문화특사로서 쓰촨성(四川省)에 방문하여 지역의 환대와 아름다운 지역 음식, 그리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시체들을 목격하고 여러 글을 남겼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는 이처럼 짧은 코멘트를 통해서 관람자가 더 오랜 시간 작품을 감상하게 합니다. 최초에 관람자는 작품 속 역사적 장면이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시작으로 작품을 마주볼 것입니다. 혹은 작품 속 장면이 1972 년의 미중회담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채고 기념사진을 찍은 직후에 흩어지는 인물들이나 세기적인 사건이 마무리된 직후의 회담장 분위기를 상상해볼 수도 있겠지요. 또한, 알루미늄 판넬로 구분되는 하나하나의 그리드와 작품 전체를 번갈아 보면서 유화 그리드가 내뿜는 감각적 색감에 기대어 1972 년을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의 코멘트를 읽게 되면, 흩어지는 인물들 뒤에 그려져 있는 푸바오스의 그림을 확인해보거나 1960 년경 조국의 빛과 그림자를 몸소 경험하였던 푸바오스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요.

리송송은 역사적 장면에 대한 설명적 사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시각을 노출하지는 않지만, 관람자가 자신에게 익숙한 역사적 사건의 의미와 눈앞의 작품을 견주어 보면서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도록 유도합니다. 즉, 역사적 장면에 대한 특정한 진실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장면의 구체적 내러티브를 의도적으로 숨겨 폭넓은 해석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지요(Bianchi 2015). 특히, 앞에서 살펴본 유화 그리드와 캡션, 코멘트 등의 장치를 통해 그의 작품을, 혹은 '파편화된 현실'로서 표현된 사실 너머의 역사적 장면을 유심히 바라보는 관조의 경험을 관람자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유물론적 재현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노동과 같다.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의 노동을 들였는가의 문제는 종종 내 작업을 감상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Li 2019).

'관조'에 이어 '노동'은 리송송이 조각난 역사적 장면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시키는 구체적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 장면 속의 우연성이나 혹은 작업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우연성을 작품의 주요한 요소로서 언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리 그어 놓은 그리드를 따라 반복적으로 유화를 덧칠하며 자신의 작업을 수련과 노동의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Li 2015). 실제 그의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캔버스 바로 옆에 작업에서 참조하는 원본 이미지가 놓여 있으며 캔버스 가장자리에는 격자를 나눈 선과 숫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사진 3], [사진 4] 참조). 또한,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그는 스스로도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노동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이해합니다. 예술과 노동, 우연성과 반복성은 일면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그는 파편화된 역사의 조각을 하나로 포개어 역사적 사실에 다가섭니다.





[사진 3] Li Songsong 의 작업장면, 2015
[사진 4] Li Songsong 의 작업장면, 2015

아울러, 유화는 물감의 특성상 집요한 반복 작업을 통해서 더해지는 노동의 흔적이 구체적인 물질성이 남게 됩니다. 여러 겹으로 두껍게 표현된 유화는 캔버스 평면상에 3 차원의 공간성을 만들어내고, 선명히 남은 거친 붓 자국은 관람자가 하나하나의 붓질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지요. 또한, 작품이 완성된 이후에도 유화 물감은 완벽히 건조되지 않아 변형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Maraniello 2015). 역사적 장면에 날 것의 물질성을

더하여, 한편으로는 추상적 형식성이 더해져 논리적 이해가 더욱 어려워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물질성이 선명해지죠.



[그림 15] 리송송, *흑선(黑船)*, 2018, oil on canvas

2019 년도의 작품 〈흑선〉 은 1854 년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군 해군 동인도 함대의 함선이 일본에 내항하였던 흑선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그림 15]). 19 세기 흑선의 내항은 훗날 일본이 개항하여 메이지유신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주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며 천하질서의 문명표준이 근대 국제질서로 역전될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관람자가 작품 속 소재의 의미를 알아차린다면 흑선 내항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왜 중국인인 작가가 19 세기 일본을 회화 소재로 삼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붕 타일'처럼 빽빽하게 표현된 파도는 흑선의 정체를 불명확하게 만들지요(Li 2019). 또한, 빽빽한 파도는 실제 파도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미지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투영한 것이며, "당신들이 정말 강하다면, 당신들의 나라에 가보고 싶습니다"라며 선박에 몰래 타려 했던 한 사무라이(요시다 쇼인, 吉田松陰)의 일화가 담긴 리송송의 코멘트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관람자들의 일반적인 기대로부터 또 다시 일정 거리를 확보해냅니다.

이로써 독자들의 시선은 다시금 빽빽한 파도로 옮겨가게 되며 감상의 기간이 지연됩니다. 캔버스 가운데의 흑선을 둘러싸고 그리드에 따라 절묘하게 파편화되어 있는 빽빽한 파도의 붓 자국들을 훑어보며, 전체 그림상을 잠깐 잊어버리기도 하였다가 하나하나의 붓 자국에서 전체 그림으로 시선을 옮겨 흑선의 등장을 다시 마주볼 수도 있겠지요. 그 과정에서 관람자는 자연스레 역사적 장면을 바탕으로 작가가 남겨놓은 물질성의 자국들, 곧 노동의 흔적을 목격합니다. 그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노동의 흔적들, 질퍽한 유화물감의 자국이 관람자를 붙잡고 캔버스에 이리저리 시선을 옮겨보게 하는 매개물이 되어 하나의 완결적인 회화 작품으로서 '파편적 현실'을 완성시킵니다.

〈흑선〉을 비롯해 리송송의 역사화에서 유화의 물질성은 오늘날 중국을 이루는 수많은 전통과 일화, 그리고 비극의 축적물입니다(Maraniello 2015). 2015 년도에 이탈리아 볼로냐의 MAMbo 에서 열린 개인전 《Historical Materialism》, 독일의 바덴바덴 주립 미술관(Staatliche Kunsthalle Baden-Baden)에서 열린 개인전 《Material as History》는 칼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 사관을 패러디하여 "역사적 유물론", "역사로서의 물질"이라는 전시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리송송은 고집스러운, 담담한, 그리고 두꺼운 붓 자국을 남기는 강력한 붓질로 역사적 장면에 물질성을 채워내 자신만의 '역사적 유물론'을 실천합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노동의 과정을 통하여, 작품 감상이 현실 정치로 비약하여 설명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조의 경험을 유도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사의 재현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명월광, 이백의 달빛은 오늘, 이곳을 비추고

이번 답사기행에서는 현대 중국예술을 상징하는 베이징의 798 예술구의 후속세대인 리송송의 역사화 작업에 주목하여, 그의 독창적인 역사재현 방식을 탐구하였습니다. 문혁 이후 중국 예술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동시에 예술시장이 상업화되면서, 중국 예술가들은 '전체'가 아닌 '파편화된 현실'에 주목하기 시작했지요.

특히 후속세대의 대표주자인 리송송은 중국의 근현대사 장면을 배경으로 삼고 이를 격자로 나누어 두꺼운 유화로 색감을 더하는 작업 방식을 통해서 역사적 장면에 추상성과 내러티브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관조와 유물론적 실천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가 작품과 현실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계속해서 중국 현대사의 중대한 장면들을 소재로 주목하는 동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작품에서 여러 장치를 활용하여 관람자가 오래토록 작품의 언저리를 배회하도록 이끕니다. 또한, 두껍게 겹쳐진 유화 자국에는 그의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격자무늬로 파편화된 역사의 한 장면을 관람자가 스스로 재구성해보게 하지요.

2019 년도 작품 〈정야사(靜夜思)〉는 관조와 노동의 심미적 실천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작품은 당나라의 시인 이백의 오언절구 〈정야사(靜夜思)〉를 유화 그리드 기법을 통해 그려냅니다([그림 16] 참조).

스무 칸으로 나뉜 그리드는 오언절구의 한자를 한 글자씩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그의 다른 작품들보다도 그리드를 선명하게 나눠, 하나의 그리드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는 인상을 주지요. 한 그리드 내에서 붓 자국은 일정한 방향성에 따라 가지런히 표현되며, 여기에 알루미늄 판넬의 입체감이 더해져 표현됩니다. 특히, 모티프가 되었던 이백의 시에서 대응하는 한자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시를, 그리고 작품을 한 글자씩, 한 그리드씩, 읽어가게 하지요. 한자문화권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자도 그의 작품을 통해 이백의 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림 12] 리송송, *정야사(靜夜思)*, 2019, oil on aluminium panel

이백, 정야사(靜夜思)

床前明月光,
疑是地上霜.
举头望明月,
低头思故乡.

침상 앞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고
땅 위에 내린 서린가 여겼네
머리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다
머릴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Moonlight shines before my bed
like frost spread upon the ground.
I raise my head to the moon
down I sink to thoughts of home.

역시나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이백의 시를 모티프로 삼게 된 의도나 시어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9 년도에도 '중국적인 것'의 모티프 중에서도 가장 고전적인 작품, 이백이 고향을 생각하는 작품을 활용해 자신의 유화 그리드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 미술계에서 '중국적인 것'의 모티프나 중국인 작가는 출신만으로도 서구 중심주의와 반서구 중심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비롯한 정치적 논쟁과 비평 구도에 따라 과도하게 의미부여 되는 동시에 작품 자체에 대한 관심은 과소평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평 구도 속에서, 꾸준히 중국적인 것의 모티프를 활용하면서도 자신의 재현작업이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로 환원되지 않고서 가능한 오랜 시간 관람자가 작품을 마주보게 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명표준이 다시 새로운 경주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송송이 가리키는 경주의 방향은 이러한 역사의 한 순간을 붓 자국을 하나하나 살펴보듯 유심히 지켜보는 것일 겁니다. 관조의 경험은 탈정치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장면에 오랜 시간 시선을 머문다는 점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정치적 실천입니다. 그리고 붓질을 하나하나 덧칠하여 반복하는 노동의 과정은 역사적 시공간으로 진입하는 고요하면서도 집중적인 여정일 것입니다.

참고문헌

국문 논문

권은영. 2009. “중국 현대미술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미술사적 고찰: 1978 년 이후 정치사회적 변화와 미술의 관계”, 〈미술사학보〉 33, 325-357.

남기범. 팡위. 2010. “베이징 따산쯔 798 예술지구 발전의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67-72.

박일우. 2014. “중국 현대미술의 동향과 과제”, 〈국제학논총〉, 22, 123-146.

박정희. 2012. “공간재생과 주체갈등: 베이징 따산즈 798 예술구”, 〈중국인문과학〉, 51, 517-538.

윤재갑. 1996. “원명원사태와 중국 현대미술”, 〈미술세계〉, 72-79.

최병식. 2005. “개혁개방 이후 중국현대미술의 변화와 주요경향-청년세대들의 실험과 예술세계”, 〈동양예술〉, 10, 6-42.

국문저서, 역서

아이웨이웨이, 오숙은 옮김. 2014. 《아이웨이웨이 블로그》, 미메시스.

우홍, 맹형재・장완석 옮김. 2011. 작품과 전시, 문사철.

자크 랑시에르, 박영옥 옮김. 2016. 《역사의 형상들》, 글항아리.
천촨시 편저, 안영길 옮김. 2004. 《푸바오스: 20 세기 중국 회화의 거장》, 시공아트.

영문 논문

Hancox, Simone. 2012. “Art, Activism and the Geopolitical Imagination: Ai Weiwei’s Sunflower Seeds”, *Journal of Media Practice*, 12(3), 279-290.
Krauss, Rosalind. 1979, “Grids”, *October*. 50-64.
Lu, Sheldon Hsiao-Peng. 1997. “Global Postmodernization: The Intellectual, the Artist, and China's Condition", *boundary* 2, 24(3), 65-97.
Sullivan, Michael. 1999. “Art in China since 1949", *The China Quarterly*, 159, 712-722.
Wang, Ning. 1997. "The Mapping of Chinese Postmodernity", *boundary* 2, 24(3), pp.19-40.
Zhang, A. Y. 2019. “Placing Arts Districts within Markets: A Case Study of 798 Arts District in Beijing”,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3(6), 1028-1045.

영문 저서

Bündge, Hendrik ed. 2015. *Li Songsong: Historical Materialism*, Bielefeld: Kerber Verlag.

Huang, W., Kaixuan C. 2010. *798: Inside China's Art Zone*, South San Francisco: Long River Press.

Li, Songsong., Paparoni, Demetrio., Ai, Weiwei. 2013. *Li Songsong: We Have Betrayed the Revolution*, London: Pace London.

Lin, Xiaoping ed. 2009. *Children of Marx and Coca Col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Lü, Peng. 2012. *Fragmented Reality: Contemporary Art in 21st-Century China*, Milano: Edizioni Charta.

Ratnam, Niru. 2004. "Art and Globalisation", in Gill Perry and Paul Wood ed., *Themes in Contemporary Art*,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77-313.

Sullivan, Michael. 2006. *Modern Chinese Artist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웹 자료

박희숙, 2010, "역사를 빌어 '시민의 미덕' 표현하다" https://bit.ly/31P5nJ6

Ai Weiwei, Feng Boyi, Li songsong, 2004, “Conversation” http://lisongsong.com/doc005_EN.html/

Feng Boyi, Jeff Crosby trans., 2018, “So Close, So Far — On the Art of Li Songsong” http://lisongsong.com/doc018_EN.html/

Feng Boyi, Li songsong, 2017, “Conversation” http://lisongsong.com/doc013_EN.html/

Gianfranco Maraniello, 2015, “Li Songsong: Images and Paintings” http://lisongsong.com/doc016_EN.html/

Hendrik Bündge, 2019, “Painted Thoughts - Remarks on Li Songsong's Most Recent Works” http://lisongsong.com/doc022_EN.html/

Hendrik Bündge, 2015, “History as Material as History” http://lisongsong.com/doc017_EN.html/

Li songsong, 2019, “About My Works” http://lisongsong.com/doc021_EN.html/

웹사이트

798 예술구 공식 홈페이지: http://www.798district.com/

리송송 홈페이지: http://lisongsong.com/